(大正九年三月五日第三種郵便物認可) 大正十四年一月三十一日 [土曜日] THE DONG-A ILBO. (Oriental Daily News) SEOUL. 第一千五百八十九號 [一]

東亞日報

發行所 株式會社 東亞日報社 發行兼編輯人 印刷人

全北道當局과 救濟事業

去年末에이르러全州饑饉救濟會에서는會員制로募集한金錢中大略九割假量으로 共同住宅을建築하게되며 新年一月一日에는起工하게全部手續이되엿슴으로十二月三十一日小澤全州警察署長은그全州救濟會幹部一同에게道當局의 內命이라하야 募集金을道에게 引渡하라는交涉을하다가 畢竟은救濟會에서募集한金錢은形式은 會員制이지만은 內容은寄附金이나다름이업스니 道當局에서募集할것이엇는데 引渡를하거나그러치아니하면 出金한會員에게 還付할수밧게업게되겟다고하엿슴으로 救濟會에서는總會를開하고 不得已하야이미作定하엿던建築을延期하기로하엿다는것은昨報와如하다

二

道當局이警察署長에게命令하야饑饉救濟會에서 募集한會金을自己에게가하는 救濟事業에無條件引渡를 要求하다가 此에不應하는것을보고는그러면出金한會員에게還付할수밧게업다고斷言하엿다 그리하야道當局의意思가그會金에對하야如此한態度를取하는理由는 道內에饑民이多大한데全州에서만救濟를한다하면何厚何薄으로不公平하다는것과 또는全州로만窮民이밀여오리라는本意에서이러한要求를하엿다고한다 那컨대全北道當局에서全州饑饉救濟에對하야 道가直接으로 交涉을하지아니하고警察署長을命令하야會金을道事業에引渡하거나 그러치아니하면 出金會員에게還付를하고 救濟事業을中止하라는理由는道內의饑民에게對한公正을企한다고善意로 解釋을할수가잇다

三

全州에서만 募集한會金이略千餘圓이라고하는바 이千餘圓으로 全州에서救濟事業을하는것이饑民에게對하야 公正을失하야 여러가지弊害가 發生함을確實히認定하면 各饑饉地에잇는民間으로하야곰 이러한救濟會가되도록 官廳에서援助를하는것이엇더한가 이와가치民間에서 救濟事業을하라고하는것을援助하면서 一方으로는이미 豫算에計上한財源으로官廳에서救濟하는것이 엇더한가 이러한方途를取하지아니하고 民間에서이러나는救濟事業을오히려壓迫하는 態度를取하는것은 무슨理由인가 官廳援助가 多少라도잇스면救濟會가 決코全州에만 이러나지아니할것은朝鮮의 現狀으로보아서分明하지아니한가 이러한積極的救濟의方途를 取하지아니하고消極的으로 이러나는地方의救濟事業을 地方的公平이缺한다는理由로會金으로募集한金錢을다시 還付하라고한다하니 那總督府官吏의 心思가아니면絕對로解釋할수업는일이라고아니할수업다

四

國庫를가지고하는 官吏의救濟事業以外에는 同胞가傍에서餓死를하고 凍死를할지라도 救濟를하지말라는말인가 또는天下에잇는 全部乞人을 救濟하지못하는者는 아모리 一人이라도그救濟를하지말라는말인가 人道的熱誠으로라도 아름답게救濟하는 一部乞人을救濟하는것은不可하다는말인가 萬一그러치아니하면무슨理由인가 다시묻는다 一郡이나一邑의乞人을救濟하는 것은全北道當局者들은不肯하며 不應하겟다는心法이냐 엇지普通常識이나普通人情으로서理解할수잇는心算이리오 全北道當局者의게諸君이民間에서의 救濟事業을壓迫하는理由는 그럼으로우리는諸君의不可思議한心法에對하야오즉懷疑를가지는同時에그淺薄하고短狹한見解에向하야一言코자함에不過하다

『알』國革命軍의勝利 南方『바로나』市도占領

羅馬特報에依하면『알바니아』反政府軍은遂히南方『바로나』市外地를占領하고現今反軍의將『조-그』氏는『알바니아』主宰者가되려는中이며敗軍의將『프안、노리』氏는敗北의原因이『서비아』軍의叛軍參加에在하다고하나眞疑는不明하다더라 (나우엔三十一日帝通經由)

伊國政府의自衛策 反對派新聞은發行停止

伊利政府는『론드』『조르날레디탈리아』及『포포로』其他反對派의主要한新聞發行을停止中인데 多數의群衆은首街에서首相『뭇소리니』氏를待하다가彼의出動을보고熱狂的示威運動을行하며彼를援助할氣勢를示하고容易히離去치아니함으로『뭇소리니』首相은自働車를停止식히고彼等과不得已握手하엿더라 (羅馬一日發)

回答은總會開催後 聯盟事務總長의聲明

國際聯盟事務總長은獨逸外相『스트레제만』氏에게回答하야日獨逸이聯盟參加에關하야照會한諸問題는來年九月에開催될聯盟總會를기다리지아니하면回答키難하다하엿더라 (나우엔三十一日帝通經由)

『트로츠키』暗殺說 眞僞는아직未詳

倫敦『타임쓰』紙『리가』電報에依하면勞農露國前陸海軍委員『트로츠키』氏는暗殺되엿다는報道가『베츠사라비아』에서왓스나그眞僞는不明이라더라 (倫敦一日發)

獨新內閣 結局마르스內閣?

獨逸議會는二月五日에召集되야現內閣總理『마르스』氏下에新內閣이組織되리라더라 (伯林三十一日發)

『루』氏의寄附 總額이六億弗

米國富豪『존·록크펠라』氏는紐育의『메트로폴리탄』美術博物館에二千百萬弗을寄附하엿는데同氏가同博物館에寄附한總金額은六億弗에達한다더라 (나우엔三十一日帝通經由)

駐獨英國大使 不健康으로退職

倫敦特報에依하면現駐獨英國大使『다버-논』卿은不健康으로因하야近々退職한다더라 (나우엔三十一日帝通經由)

『데임쓰』河汎濫

英國에는連日霖雨로因하야『데임쓰』河가增水되야河畔多數의都市는危險에陷하엿다더라 (나우엔三十一日帝通經由)

英飛行家成功

英國飛行家『드레이』氏는一千八百米突을四時間中에飛翔하야新記錄을作하엿더라 (나우엔卅一日帝通經由)

英對米新公文

英國은米國에對하야新公文을送하야戰時債務에關하야米國이佛國에對한支拂停止를許하거나或은英國이支拂하는것보다低下한金利를佛國에許할지라도別段反對의意가無함을說明한것이라報道되나然이나英國이特히佛國에對하야要求하는것은佛國이米國에對하야債務를支拂함과同時에英國에對하야債務를支拂하라는것이라더라 (倫敦一日發)

放火!掠奪!避亂! 南京城內에突發한兵亂

二十日夜南京城內에兵亂이突發하얏는데齊燮元의部下이던第六師司令部附兵約百名은掠奪과放火를恣行함으로警備隊巡警이鎭撫에努力한結果三十一日午前二時에鎭火되는同時에조금平穩하게되엿스나中國人間에는種種의風說이起하야下關方面에避難하는者가多數이며日人의被害는全燒二、掠奪一인데人命에는別異狀이업다더라 (上海三十一日發)

海底線調印終了 青島佐世保間線은 日本의勢力範圍

今番日中電信會議에서靑島佐世保間海底電信의協定은成立이되야三十一日午後交通部에서雙方委員間에調印을終了한結果靑島佐世保間線은依然히日本側에서運用하게되엿더라 (北京三十一日發)

奉軍殘兵掠奪 列內車에闖入

三十日午後四時北京發列車가揚村附近을徐行하는中兵士數名이列車에闖入하야乘客의英米日獨人에게서七千弗을掠奪逃走하엿는데右는奉天軍의殘兵인듯하며國際問題를惹起하리라더라 (北京一日發)

日首相의決意 西園寺公도諒解

日本加藤首相은二大政策의完成하엿슴을首相이西園寺公을訪問하고新政策의樹立을報告하는同時에貴族院制度改正問題에言及하야엇더한決意를告하고公의諒解를得하엿다하나 首相의表示한決意가單히貴族院制度改正에만限한決意엇는지或은此를包含한新政策遂行에關하야政局의前途에處할決意엇는지其與否는不明하나園公은首相의態度에滿足을表하엿다더라 (沼津電)

運輸狀況及施設 弓削鐵道部長談

十三年中의國有線運輸狀況은旅客貨物이다特히上半期에不況이繼續하야旅客員數는增加하엿스나主로近距離旅客의增加이엇슴으로延人哩에는前年에不及하다 貨物은取扱噸數가적을뿐아니라輸送哩도大槪短縮된結果客貨車收入은모도다豫定에比하야多大한減收를未免하엿다 九月以降은殼價의昇騰으로多少나엇스나一個年을通하면到底히豫定收入에達하지못하엿다 收入狀況이如此한故로委託會社에서는極力經費節約에努力하야或은列車의一部를取消하고優等客車의連結을廢止하며或은使用石炭의配給方法을改하고其他諸施設을中止하는等苦心하엿스나그節減高로는아마減收高에不及할지며本年에入하여서도兩政의緊縮及一般經濟界의不振으로運輸狀態의回復은希望이업는故로可及的人件費物件費의節減을圖하야收支均衡을保함에努力할必要가잇다 十三年中에實行된運輸施設中現著한者는第一咸鏡線의百十二哩餘新線開通인바그南部線은陽化外北進하고新히出現한中部線에서는城津을中心으로南은端川北은吉州를結하야北部線은水南外지南進하고殘部는陽化端川間五十七哩餘水南吉州間四十三哩餘임으로共開道路를改修하야鐵道開通과同時에民間의自働車를經絡運輸식히여그것으로事實上咸鏡線의陸路交通은全通하게되엿다 他交通機關과連帶運輸擴張으로는上述自働車連絡及私設鐵道新開通線과連帶輸送外에大阪商船會社의北鮮航路와聯絡運輸를開始하고對朝鮮郵船會社의聯絡範圍를擴張하며其他中國鐵道四洮線鄭家屯洮南間等聯絡을開始하게되엿스며六月에는京城에日中國際聯絡運輸會議를開催하야同聯絡에關한各種施設改善을議定하엿다 其他各種貨物特定運賃의改正又는新設을行하며或은多年懸案이던旅客荷物運送規則을制定하야日鮮滿運送規則統一과共히規程을 … 고其他地方產業開發上必要한特定運賃設定을하는것이잇다 그리하야新年度에私鐵線에施設을要하는主要者는貨物運賃規則의一般的改正統一、統一的旅客及荷物運送規則의制定、國有線을介한私鐵相互間의三線聯絡同國有線을介한私鐵과日本省線의連絡等이니私鐵會社의事業도益々多事할것이다 (終)

朝鮮財界의推移 (下)

尙且事業界의形勢를보건대會社事業의新設擴張、資本은一月부터十一月까지 六千六百萬圓이엿는데 此를前年同期에比하면實로二千百萬圓 卽四割强의增加인바 이것은前年의朝鮮事業界가特히不振하엿슴으로十三年의計數가 以上과가치增加한것인데要컨대 朝鮮事業界가漸次振興期에入코자함을示한것이다 다시그業別은製造工業에關한會社가最高位를占한것은共히最高位를占할것이라할것이다 今에昨年(一月十一月)中에解散減資를決行한會社는百二十六社 其資本額은二千四百六十萬圓으로 此를前年에對比하면社數는二十社、資本額은三百萬圓의增額인바 此는合資組織의貸金業者 其他小規模의商業會社等이整理된外에는根本的缺陷을發見할수업슴으로 畢竟事業界가一面으로는整理中임을證할것이다

金融界의 形勢

는米高價로地方農民의購買力이依然減退치아니하고 棉糸布에對한資金需要가增加한外에도金融界는매우活氣를 띄이며特히年末에繁忙을呈하야 朝鮮銀行券發行高는 畢竟一億三千萬圓臺에達하고 全鮮手形交換高는前年에比하야 六千兩月을除하면各月이모다增加한바 十一月까지合計額은 枚數는 七萬八十六枚, 金額은 七千二百三十一萬圓의增加이다 昨年朝鮮經濟界의商取引과事業及金融의槪況은上記와가치各方面이모다前年에比하야多少好轉하얏스나前年以來의小康狀態를繼續함이요

中間景氣

財界가漸次整理를完了하야健實한基礎가確立하엿다함은早計일것이다 目下日本財界의狀況은最近海外財界가好轉한다하야 人氣的으로一時好影響에傾하는모양이나 此는生産去來를根柢로하야 積極的의好況이아니요 所謂消極的의中間景氣에不過한狀態임으로 日本財界와密接한關係가잇는 朝鮮經濟界도今後眞實한好況을見함에는相當한時日이걸릴것은 明白하다 近來日本財界에서朝鮮의

經濟事情

에關한問題가더욱注意를惹起케되야 資本의流入이 漸次容易케되는傾向이요 또當局方針도產業第一主義를取케됨으로 今後此方面에對한施設의着手와共히 朝鮮經濟界의前途는 益々有望하다할것이다 (朝鮮銀行大原底夫氏寄)

滿鐵의豫算案 大藏省에서審議

滿鐵會社의十四年度事業豫算案은十一月下旬에大藏省에提出이되고案의內容에對하야도當局은滿鐵側의說明을聽取하엿스나各省豫算의查定問題、議會開會、政務多端을因하야尙今審查의未終了로一月中旬이아니면認可를맛지못하게될貌樣이다 更히十三年度의事業으로서本年度에延期된約千二百萬圓의事業繼續豫算을前記十四年度豫算案과共히主務省의認可가有하여야하게되엿다

審議中의法律案 過激取締法案도實施를期必

日本司法省은今期議會에提案할法律案을目下刑事、民事局에서銳意審議中이나其重要한것은民事局에서는商事調停法、外國人土地所有法、刑事局에서는過激社會運動取締法案인데民事訴訟法、行刑法等은保留하기로決定하엿다 右記中商事에關한調停法이成立되면辯護士의收入에多大한影響이有함으로辯護士의反對는相當히猛烈하나司法省은此를看過하고社會政策上의施設로期於히提案하려邁進하려는決心이며外國人土地所有法은이미明治四十三年法律第五十一號로서交付되엇스나아직實施되지안엇슴으로今番에는再次提案하야極力으로此의通過實施를期하는中이며社會運動取締法은現在의刑法及治安警察法으로取締치못할것을取締하는法案인데多年의懸案이던바大端한反對가有할지나此亦實施를期必한다더라 (東京電)

勞働問題와其對策

諸外國에서近時勞働問題가非常히시그럽게된것과同樣으로日本에서도亦此種의勞働問題가非常히濃厚하게되여감은明瞭한事實이다 그리고日本의勞働者가恒常勞働者인地位에滿足하야向上할줄을모르고一意資本家에奉仕하야其命令에服從하던時代도有하엿스나現今에는如斯히無自覺한勞働者는無하다하여도可할만큼 化하야紳士的으로行動하려는것도事實이다 階級的反感을抱하는者는貴族院改革을부르지지며一步를進하야는政治의所在에在하야는既成政黨의打破與立內閣의是非地方自治制度의刷新等을부르지게된것은是皆政治的으로自覺한것이라고稱할것이다 未久에普通選擧를實施하리라는現象에在하니此種의勞働者에依하야民衆을代表할

代表者는

選定될것이니 勞働者라하야도直時政治에自覺할方法을講究하지안으면아니될

勞働者는 自覺하얏슴으로

日本의勞働者가何時까지던지如斯한狀態에在하다고想像함은時代錯誤의가장甚한것이라하겟다 日本의國民敎育의制度를實施한것은明治初年이며其後數十年의長歲月을經過한現在에在하야는如何한寒村僻邑의兒童을勿論하고小學敎育을不受한者는無하며一方新聞紙의普及圖書館의設立等諸制度를設置하야國民敎育을終了한國民에게處世上의知識을給與하는便宜機關外지設立이되여잇다 無學文盲하던勞働者라하여도임의

相當한知

識과學術을具備하고時勢를理解하게되엿슴으로彼等을取扱할時昔日과가치奴隷視함은到底히今日에在하야는不許할事實이다 一部論者가今日의日本勞働者流를指目하야無自覺한國民이라云謂함은勿論勞働者를輕侮하는것만이아니라國民敎育의效果를蔑視하는것이라고할것이다 그리고日本現在의勞働者는至今하야는階級的反感을抱하고政治가무엇인가를解하며其矛盾을指摘함에까지向上한것을認定치안을수업다 此時에處하야自覺하얏다할수는업다 但昔日의그것에比하야自覺하얏다는것에不過한것이라하지안으면안되다 然이나現代의日本勞働者流는如何히政治的으로自覺하얏다하여도眞實로自覺하얏다할수는업다 現代日本政府의吏僚는恒常日本勞働問題에特殊의解決이有하다고論한다 然이나其論한바에依하면日本勞働者의自覺이아직現著치못하다고하며或은日本에

主從關係

가有하다고論한다 然이나此는卑論할價値가無한것이다 …

簡單한問

題가아닌임으로 …

制度如何

에依하는것이라함으로此際政府에서는速히勞働問題解決方法과勞働者失業者救濟策을講하야國力의充實을計하는것이最急務라할것이다 …

其生活을

保障하면서又는國家의助力에依하야其生活을安固케할必要가有하다 …

◇東亞漫畫 投稿歡迎 謝禮贈呈

돈은네가내고、救濟는내가한다

大阪金融狀況

年末의大阪金融市場은現金의移動이만허『쿨』去來는繼續旺盛하야『쿨』翌日物은前日同率의二錢五厘를唱하엿스나交換後에는受

金融方針緩和 海東銀行支配人 趙南駿氏談

昨年의財界는더욱沈衰하엿스나秋冬以來金融이多少緩和되는傾向이보혓다 그러나此는一時的傾向에不過하고財界는依然히萎靡沈滯하고各商界는稀有의慘狀을呈하얏다 銀行의貸付는警戒가非常하나銀行에서는極端限度를維持하려고努力하는바이므로故意의緊縮이아니엿다 朝鮮人의財力이年々減縮됨을따라그信用程度가低下케됨으로銀行은不得已警戒하는程度를示하게된다 그러나昨年年末에는比較的破綻업시經過한것은가장欣喜할바이다 …

巨大한綿布輸入 東洋物產會社社長 金潤冕氏談

世界戰亂으로因하야財界에波及된病根이全治되기前에第一加하야日本東京의未曾有한震災로我經濟界를一層攪亂케하야財界恐慌이極度에達하엿든바西道一帶의饑饉된水害와南道地方의悲慘한旱災로產業의大宗인農村의收入이減收되야以上의金融은一層枯渇狀態에在하고回收不能하야 …

一般產業

界도亦整理緊縮의影響으로一般으로振興치못하야漸次不振한狀態에在하며 …

◇橫說竪說

日本西園寺公의別號가陶庵이다 『乾坤不老月長在 寂寞江山今百年』이란글에서온것인바李氏名祖上의別號와갓다

◇現任朝鮮總督府政務總監閣下의別號는三案이라한다 우리나라에도三案別號를가진人物이잇섯다

◇逆臣으로몰린、鄭三案이잇섯고、賊魁로몰린吉三案이잇섯다

今日本紙八面

居昌郡南上面□□里 李鉉鎔

居昌郡加北面九士里 都成洛

居昌郡加北面九士里 都明均

居昌郡馬利面□□里 曹瑀泳

居昌郡居昌面上洞 章尙煥

居昌郡居昌面下洞 朴應圭

居昌郡居昌面上洞 金戴煥

居昌郡居昌面上洞 金信徹

居昌郡居昌面上洞 鮮南印刷所 主 愼昶銑

居昌郡居昌面上洞 代書所主 姜浩克

居昌郡居昌面東洞 愼道出

居昌郡居昌面下洞 李鉉彬

居昌郡居昌面下洞 代書業 崔東錫

居昌郡中洞 李駿龍

居昌郡居昌面下洞 米穀商 金秉佑

居昌郡居昌面下洞 半島洋服店 李炳煥

居昌郡居昌面下洞 大昌理髮舘 主 李基鳳

居昌郡居昌面下洞 繩叺組合所 組合長 寺尾淸太郎 理事 愼鏞禧 書記 愼壹綷

居昌郡居昌面下洞 居昌青年會

居昌郡渭川面駐在所 巡査 金容琪

居昌郡居昌面□□里 愼宗海

居昌郡居昌面□□里 鄭漢哲

居昌郡加北面 事務所 職員一同

居昌郡馬利面迎勝里 盧壯元

居昌郡馬利面迎勝里 事務所 職員一同

居昌郡渭川面 事務所 職員一同

居昌郡渭川面渭川里 李相滿

居昌郡渭川面渭川里 李三雨

居昌郡渭川面渭川里 鄭海均

居昌北上面□□里 林有樑

居昌北上面□□里 事務所 職員一同

居昌郡熊陽面東□里 李太永

居昌郡熊陽面山浦里 面長 李拔鈺

居昌郡加北面一□里 面事務所 職員一同

居昌郡加北面一□里 李中義

居昌郡加北面□□里 卞元植

居昌郡居昌面上洞 面事務所 職員一同

居昌郡居昌面上洞 面長 愼鏞禧

居昌郡居昌面下洞 李鉉輔

居昌郡居昌面□洞 愼翼縡

居昌郡居昌面上洞 巡査 車東根

居昌郡居昌面中洞 巡査 金在守

居昌郡熊陽面駐在所 巡査 姜仁性

居昌郡居昌面上洞 巡査 朴□□

居昌郡居昌面上洞 巡査 金基善

居昌郡居昌面下洞 東萊銀行支店 一同

居昌郡居昌面上洞 法律事務所 李徽普

居昌郡居昌面上洞 李愚亨

居昌郡居昌面下洞 居昌自働車會社 事務所職員一同

居昌郡加西面 事務所職員一同

◇소 잔등에 소해의 첫 눈!

重大陰謀發覺

○○○을○○하려든음모 京都檢事局非常活動

일본경도디방검사국(京都地方檢事局)에서는 작년섯달이십구일부터 세말이되야 휴가할때임에도불구하고 고하(古賀)검사정이하 여러검사들은 추야로며활동을개시하야 송원서(松原署)에이미인치중인 모모청년들을엄중 취조하는중이며 이십구일은 동경방면과도 련락을취하야 대판에까지 손을늘여 활동을할터이라는데 그사건의 내용인즉 ○○○을○○하려고하는 일대음모라하며 사건은동경경강(節岡)기타각디에도파급될형세이라더라 (경도뎐)

火藥拳銃을密輸入

○○사건과도관계가잇는듯

경도디방재판소(地方裁判所)검사국에서는 작년말 이십팔일이래로고하(古賀)검사정과 남부(南部)주석검사등이한방에모히여무슨결의를하야 자못 긴장하엿는데 그날오후에는 중대사건의범인신곡여일랑(新谷與一郎)을형무소로부터 끌으러내여 다가이십구일까지 계속하야 비밀리에 취조를 진행한결과 신곡들의한범행은 대략판명되엿는바 사건의내용인즉 아직보도할 자유가업스나 대략탐문한바에 의하건대 신곡일파는 재작년말대판시외소판(小阪)에잇는십오은행(十五銀行員)살해사건(殺害事件)에도관계가잇스며 최근에 굉장히 떠들던○○사건과도 큰관계가 잇는모양이라하며 신곡은 이런한사건을계획하기 위하야 신호산수(神戶山手)에잇는청목(靑木)등과공모하고화약(火藥)과귀타륙혈포를 밀수입한 일도잇섯슴으로 그와가치 경도디방재판에 사건은넘어가게된 것이라하며 또이사건의 련루자인동지사(同志社)대학교학생팔목신일(八木信一)외아홉명도미결감에임의수감중에잇다더라 (경도뎐보)

北監理教女宣教師

선교차로만주에

북감리교 조선녀선교회(女宣教會)에서는이번에 만주(滿州)와 서백리아(西伯利亞)에뎐도를하기위하야 량(梁)으로뎌녀사를선교사로 파견하게되야 재작일월일일 하오일곱시차로 합이빈(哈爾賓)으로떠낫다는대 『으로떠녀사는 량재창(梁載昶)씨의매형으로 첨어서 열일곱살쌔에서집을갓섯스나 얼마못하야 헤여지게되매 교회에일생을 밧치기로결심하고 즉시 협성녀자신학교(協成女子神學校)에입학하야 뎨일회로 졸업하고 그학교사감으로잇다가 근년에는 디방순회뎐도도하고 중앙례배당(中央禮拜堂)에서일도보다가 이번에파견되엿는데 뎐도순회 구역은 봉텬(奉天) 길림(吉林) 합이빈(哈爾賓)등디이라하며 주재하여잇슬곳은 합이빈도리십륙도가(哈爾賓道裡十六道街)이십칠호라더라

東京府下火災

사십호가전소 빈민촌으로더욱참혹

삼십일일오전두시이십분에 동경부하일모리(東府下日暮里)금물상하는 진아좌길(秦野佐吉)의집으로부터 불이이러나자 마츰북풍이 세게불고 수도가불편할뿐아니라 길이협착하여서 사십사호가전소되고 네호가 반소되얏고 세시반에 진화되얏는데 그곳은 빈민굴이만키째문에 칭초입에도 벌거버슨채로 날뛰여 참혹한광경을 일우엇다더라 (동경뎐)

上海臨時政府 國務院新組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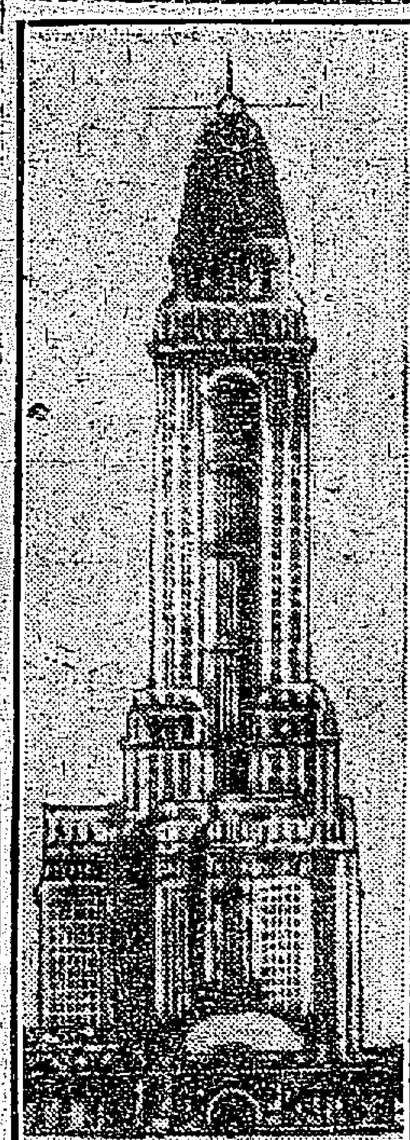
뎨일차으로림시헌법을개정

박은식(朴殷植)씨가 림시정부의 중임을맛타가지고 나온뒤에 국무원(國務院)을 새로조직하얏는데 그씨명은 아래와가트며 이번에할일은림시헌법(臨時憲法)개정으로써 극히속한기한에 그일을결속하고다시새로운긔관을 일신하게 조직하리라더라 (상해특신)

▲內務李裕弼 ▲財務李圭洪 ▲法務吳永善 ▲軍務兼交通盧伯麟 ▲學務趙尙燮 ▲勞働金甲

◇紐育摩天樓가코쎄인世界最高의摩天樓◇

『이태리아』(伊太利)의총리대신『못소리니』씨는 무엇이든지 세계뎨일이라고 자랑하는미국의볼을 쥐여질러볼려는심산인지는모르겟스나 엇덧든 세계뎨일의놉흔집를『로-마』에 세울녀고 그설계를『남아메리카』『알제친』에잇는 이태리아출생의 건축사『마리오써란친』씨에게맛첫는데 그설계의일부가이사진이다 놉피는 일천일백여척으로세계뎨일이라는『뉴-욕』『울워쓰쎌딍』이라는 마텬루(摩天樓)보다 사백팔척이나놉고 층수는디상만이 팔십층이요 방수가 사천오백큰『홀』이백이요 그외에극장등이잇는것은물론이요 집일홈을『모라릿드렌』라고지을터이라더라



社會運動과民族運動

(二) ‖差異點과一致點‖

社會運動의一途程

◇朱鍾建氏談

◇이두가지운동은고유한의미에서본질뎍(本質的)으로그것을관찰할때에공통된대외뎍객톄(對外的客體)를가젓다는 점으로써일치합니다 그러나한거름더나가서그내부에이르러이종객톄(二種客體)가잇는것을발견할때에는스사로그차이점(差異點)을알아보게 됩니다 다시말하면지금사는그형태의엇더한것은 고만두고라도오즉착취(搾取)와피착취(被搾取)의두계급으로구성되여잇는 것만은엄연한사실임으로 가튼민족사이에서도 자연히계급뎍으로리해관계가갓지아니하야 한계급은다른한계급에게 착취를당하게됩니다 그럼으로써민족운동을해부뎍으로 관찰하여보면 하나는자긔계급의생활현상을 유지하면서보다향상을 목뎍하는운동이며그반면의하나는 가튼민족운동자로서도 『주엄』을면하려는최후의부르지짐임으로 그것이실케의 생활운동이됩니다

◇그러나 민족운동도 포괄뎍(包括的)의미에서 다만민족뎍개심을 고취식히는관념운동을떠나가지고그객톄의정톄(正體)를발견하야오즉상대방의객톄중에서도 그민족중의『불주아』와 밋그의주구인 권력계급만이 자긔의대외객톄가되는것을아는때에는 바로소그것이혁명뎍 민족운동자가되는동시에 사회운동자와동일한보조를 취하게되며 이에이르러민족운동은 그만큼발전을하엿고 또한사회운동화하엿다고 말할수잇습니다 그럼으로써 정책상(政策上)으로보아 다만 민족의해방을목뎍만으로하는 민족운동은 사회운동을 일우어나가는한도정(道程)이되는것이며 사회운동자는 민족운동자로하야금 하로밧비그객톄의정톄를발견하도록 로력할것입니다

奸猾한面長

면소를사유물로알아 면민은배척을준비중

전남무안군 지도면장김용환(金容煥)씨는 취임한이후로 면직원을 무시하고면사무중 가장중요한서무(庶務)권업(勸業)량사무를 도외시함으로 각반시계획에 지장이생기여 면행정을퇴보케하고 개인의사감으로 면서긔들을 면직식엿다고 면민의의론이 만타는데그내막을 들으면 면댱김용환씨는서긔로 잇슬때에 그고을군수와 친척관계가 잇슴으로 르루히 면댱운동을한결과 권면댱조종협(趙鍾俠)씨와수석서긔김평두(金平斗)량씨를김군수로부터사직을 권고한후 그차석이든 김용환을 재작년십일월중에 면댱으로 취임케한그째부터 면직원은물론이오 일반면민은 불만을부르지지든중 김용환은 면장에취임한뒤로 서무권업에 대한기안은추호도 살피지아니하고 일시촉탁사무인세금증수에만진력하며 자긔의친척을서긔로채용하려고권업서긔김일두(金一斗)씨를면직식힌후량모(梁某)를채용하야 지식과기능여하를불고하고 고봉급주어상석대우를하게되얏슴으로재래근무하든직원일동은 불평중에잇다하며 또이번에 서긔리련조(書記李連祚)씨를 무조건으로 면직을식힌고로 면민들은 자못의운에 싸여잇는모양이라는데 모방면으로 탐문하면 재작년십이월중에 지도금융조합 이 창립될째에 조합당 선거를 맛치고 강세창(姜世昌)집에서 간친회를 열고 장내유지방침에대한 의견을 교환할즈음에 면댱의 아우김재긔(金在基)와 그친족칠팔인은 무근한유언을듯고 자긔형 김면댱(金面長)을 원성(猿猩)이라하엿다고 권면댱 조종협(趙鍾俠)에게달려드러 무지한 폭행을할으로 마치참석되엿든 김일두리련조(金一斗李連祚)량씨는 그것을만류함에 너희들도 조종협과가튼놈이라하며 무수히 구타를하얏슴으로 간친회는 일대수라장을일우고 구타를당한 리련조는 약일개월이나 출입을못하엿다하며 작년십이월 십일일에 군에서 발송한 면직사령을 자긔수중에두고 그동안 사무를 보게한후 이주일뒤에야 사석에서 본인에게 전달함으로 본인은 그리유를 물은즉 어제야 도착되엿다고간교히대답하얏다하며 면민의 공의를들으면 김면댱은 권리를 남용하야 우수한면서긔들을 면직식히고 겸하야 자긔의친척으로 직원을 조직하야 면소를 케수중에 너흐랴 한다하야 면민들은 매우분개하야 그대로간과할수 업다는취지로 불원간면민대회를열고 김면댱에게사직을권고하되 만일듯지 아니할때는 철도도하며 불신임안을데출하는동시에 면직원일동도 총사직을할터이라더라(함평)

貯金通帳을僞造

우편소당의도장을위조하야 연사흘거짓말로수천원긔입

평북녕변군 소림면상추동(郡上秋洞)리경립(李敬立)(三一)리용훈(李用薰)(三三)뎡학련(鄭學天)(二八)등세명은공모하고 지난팔월이십구일에서병태(徐炳泰)라는명의로박천(博川)우편소에 삼십삼원을 예금하고그후구월이십구일에 십칠원을 또예금하고는 우편소장의도장과 일부인을위조하야 십월이일에 륙백칠십원을 십삼일에 칠백이십원을 이십칠일에 칠백이십사원을 통장에사사로허위긔입하여가지고 십이월이십오일에 일천사백오십원의불려(拂戾)청구를하다가 사실이박천경찰서에 발각되야 세명이다한거번에 테포되여 취조를밧는중이라는데 이자들은 그밧게 녕변군텽인장과녕변경찰서장인등을 위조한관인이다섯이나잇섯다더라(박천)

獄中에서母喪! 出監한朴熙道氏

==昨朝七時入京==

◇……임의보도한바와가치 신생활사(新生活社) 사장박희도(朴熙道)씨는 재작일아참다섯시에형긔를맛치고 함흥형무소(咸興刑務所)를나와 즉시그날밤차로 함흥을떠나작일아츰일곱시경에경성역(京城驛)에 도착하야가지고 마중나간여러지구와및가족과함께 바로동숭동(東崇洞) 자택으로들어갓다더라

鐵窓呻吟

전후로두번재

다음은신생활사 건에 첫번은삼일운동으로

◇……박희도(朴熙道)씨는 대정팔년삼일운동(三一運動)이 이러나던첫날 즉삼월일일에 삼십삼인중에들어검속(檢束)이 되야가지고 서대문형무소(西大門刑務所)미결감(未決監)안에 들어간후 이년의징역선고를바더얼마동안 진귀서대문형무소 안에서 복역을치루고나서다시 공덕리(孔德里)에잇는경성형무소(京城刑務所)로 이감이되야 맛참내그곳에서 복역을맛치고 대정십년십일월오일에 출감이된후 감옥을나오는길로가진 신산을맛보아가며신생활사(新生活社)를건설하야잡지신생활『新生活』을발간하야오다가

◇……겨오롬이 뭇나뭇나한십일년 십일월 이십이일에 이르러 거듭 신생활사사건으로검속을당하야 이듬해즉십이년일월 십륙일에 다시경성디방법원에서 이년징역의징역선고를밧고 거듭서대문형무소에들어가그물(網)또는 일로 오월십사일에 지나다가십오일에동지들과 함께함흥형무소(咸興刑務所)로넘어가 가지고 벽돌(煉瓦)굽기와 고리짝만들기(杞柳細工)로 그날그날을 지나오던중 그간감형이되얏슴에 맛참내재작일아참에 만기출옥이되엿더라

◇출옥한박희도씨 ==작일자택에서==

獄中當故

손곱아기다리든로모 십여일을압두고별세

◇……박희도씨가그와가치옥중에서해를보내이는 동안원래에도넉넉지못한 그가뎡의생활은더욱더욱비참하야 그부인과 며느리자녀들은 신설리(新設里) 조고마한초옥안에서 가지각색의신산을맛보앗다하며 맛딸되는○○○이룡두리(龍頭里)아소교당안에잇는 보통학교의교편을잡어그에서 밧는약간의보수로겨우겨우 그나마생활을유지하야왓다고한다 더욱이박희도씨의늙으신 어머니는출감할날을손곱아기다리고 기다리다못하야맛참내 작년십이월십구일에이르러 세상을떠나가고말엇다한다

『不孝子』! 無爲者

봉양도못하고림종ㅅ지도…… 한일이업스니출옥해도설움』

◇東崇洞自宅에서 朴熙道氏談

모상을옥중에서맛나고도라간지열나흘만에 겨우복역을 맛치고나오게된 박희도씨는 비창한새옴을씌우고말하되

◇……비록털창을버서나와다시광명한세상을 보게되기는되엿다고하나 사실조곰도깃분마음은업습니다 어머님께서살어계실째에는 무엇이니 무엇이니하야가지고 쓸데업시몸이밧분째닭에 한시도모시고안저서 쎄뜻한모자의정을 하소연하야본적이업섯고 도라가시는그째에도림종ㅅ지 모시지못한자식이무엇이라 얼골을들고 령흔을뵈올는지요 더구나제가재작일아참감옥을 나온후로도몃시간이지나도록 어머님께서돌아가신줄을 캄캄히몰낫습니다

◇……우리사회에대하야는이럿타고무엇한가지 공헌하야노흔것이업고 부모에대하야는자식된도리를 다하지못하얏스니 모든형데들을 뵈옵기가 너머도붓그럽습니다 우리가뎡이 비참하게지내엿다고하니 말이지 사실 그럴수밧게더 잇겟습닛가 우리의집이 원래부터 유족하지는못한데다가 소위주인이라는 제가 그와가치 전후오륙년동안이나감옥생활을 계속하게되니 세간사리가 자연비참하야질것은뎡한리치올시다

◇……그리고서대문형무소에서함흥으로 이감이되엿에는동지가여러사람이엿더니 제가출감이되엿째ㅅ지는 모다먼저형긔를맛치고 나가게된째닭에사실제가우리동지중에는 데일뭇째지 남어잇섯습니다 나올째에는 소위상여금이라고 구원을주어보냅듸다 그러나그것이 전번출옥할째에 바든돈에비교하야서는 썩만흔돈이올시다

◇……지금은 무엇무엇경황이업습니다만은 하여간어머님초중이나 치르고는 다시 그전사업을 계속하야볼작뎡인데신생활은 임의영구히발행금지가 되고마랏스니 신생활사만이라도 그대로 계속하야 볼작뎡이올시다 뉘라고하더라

今日午前發靷

영결식은청량리에서

출감을기다려지나가로한박희도씨의대부인변씨(卞氏)의장례는맛참내금일오전 열한시동숭동(東崇洞)자택에서발인(發靷)하야정오에청량리(淸涼里)뎐치종뎡에서 영결식(永訣式)을맛치고 묘디로향하야출발하리라더라

歲饌이阿片

재작초하룻날 아편밀매자두명

함경도장진군(長津郡)산다는박청규(朴淸奎)(三七)외한명은작이일오전 일곱시반경 시내수표교(水標橋)위로아편일관칠백이십옥몬메를검은보자기에싸서메고가다가종로(鍾路)경찰서순사에게발각되야 박청규는 당장에테포되고 한명은어데로 다러낫는데아편의가격은일천원가량이라더라

惡魔老婆

남의집딸을 중국인에게팔려다발각

지난삼십일오후시경에 인천부내리일백구십사번디 리명규(李明奎)라는사람이외리파출소에와서엇던로파가청년녀자하나를중국인(中國人)에게팔녀한다고하므로 이를조사하야본결과부천군 다주면오봉리 사는최청녀(崔淸女)라는녀자를팔라먹으려든 사실인데 원래 그녀자는 인천부신화수리에서살다가 지금으로부터 륙년전 그가열네살되던해 봄에오리골(梧柳洞)사는 강윤동(姜允東)이란열일곱살된신랑에게 시집을가서 사려오는동안 친뎡부모와 시부모는 다세상을떠나게되엿고 내외는그후 공연히 마음이맛지안케되여 작년음력칠월경에 그집을떠나 그리웃과 개성방면 으로표류하다가다시오리골로도라와남의집에 붓치어지내는중 엄마전에 친그최성녀를맛나 며누리를 삼겟다

는 조건으로 주안(朱安)자미집에 다러나두엇다가 인천부용정 이삼삼번디에서 운송업하는정문영(鄭門永)의처족지긔의 딸로데부려 공모하고 중국인에게팔어 먹으려고 중국인사오명에게 처음 백이잇스나 간란은중국인에게는가지안겟다함으로 여러말로 달래고위협도하며 보앗스나종배둣지아니함으로 다시서울로 다리고가려할지음에 진긔리청구라는사람에게 그사실이 발각된것이라는데 그녀자는 아주리씨에게 맛겨두엇고 그로파는 그그미롭을고 몸을어데로감초엇다더라

◇新郎新婦 박필주(朴弼周)씨의 친뎨인박화권군은한학교재학중의건주(建周)(二五)군과 김봉(金奉)씨의장녀동덕녀학교재학중의흥순(興順)(二〇)양은 재작일일 오후세시에 시내중앙례배당에서 화촉의뎐을 거행하얏다더라

饑饉救濟金品

▲金十四圓四十五錢 京城二村洞鐵道學校同窓生朝鮮人親睦會 ▲金三十圓 京畿道安城郡[illegible]敎會

◇本社에드림온것

▲五圓五十五錢也 全南務安三鄕公普校生徒一部

◇휴지통 ▲세해를 맛자 휴지통도 다시살이되엿스니 유처럼갈나히는 되엿지만은 철은 언제나 들지안어한다는 소리가 이더위 소리뿐이다 ▲중추원 부참의니 하나이더할생각을 가짓 『쾌나』를씌고 외칭테 관사부근으로 어청어청가다니는 보량반들의딸은 물에서건저내 강아지 색기갓해서 몸개르운 임이야 ▲일본동경 어되선지 백합자(百合子)라는여섯살되게집애는철채림을 잔득하고 각가에서노는데 ▲이십살이체못되여보히는 자뎐거타고가든 청년한명이 무신중 달려들어 공동변소로설고드르가서 욕을 보히다가우는소리에 완전히 성공을 못하고다러낫다고 ▲이것이동경초하롯날에생긴녹경의첫사건

光陽郡仁德面道月里 [illegible] 永[illegible]

光陽郡仁德面道月里 [illegible]

光陽郡津上面蟾居里 黃文玉

光陽郡津上面 面書記 黃炳駉

光陽面職員一同

光陽郡津上面蟾居里 金[illegible]俠

公立普通學校敎員 [illegible]大貫

光陽郡津上面蟾居里 公立普通學校敎員 朴又連

光陽郡 公立普通學校敎員 朴準彩

光陽郡津上面蟾居里 陳龍成

光陽郡玉谷面元月里 鄭[illegible]柄

光陽郡津上面蟾居里 李鉦九

玉谷面職員一同

光陽郡骨若面城隍里 鄭容茂

光陽郡玉谷面元月里 文成龍

光陽郡玉谷面[illegible]洞里 李起洪

光陽郡多鴨面新院里 李源生

光陽郡津月面身月里 金萬壽

光陽郡津月面月吉里 鄭忠鉉

光陽郡邑內 光河自働車部

光陽郡玉谷面廣英里 禹承鉉

居昌郡加東面一釜里 道評議員 金寀煥

居昌郡渭川面[illegible]洞 鄭來均

全南麗水港 海陸物産 貿易及委託 米穀雜貨 鍾完商店 電話二二〇番

全南麗水東町 海陸物産商 金在成

麗水港西町 麗水洋服店 主任 丁[illegible]秀

麗水郡東町 回生醫院長 三角昇

麗水郡麗水面西町 第一學院 院長 鄭永善 敎員 李善雨 同 李芳憲

麗水郡麗水面 面長 俞國濬 外職員一同

全南麗水港 左水營醫院

全南麗水 昇平醫院長 金桂洙

全羅南道麗水郡 突山支會長 金[illegible] 總務 [illegible]

麗水郡西町 基督敎會職員一同

麗水郡廳職員一同

柳作組合職員一同

全南麗水港西町 朝日材木商 鄭永善

麗水郡突山面 面長 盧鳳洙 職員一同

麗水郡西面漁業組合長 金[illegible] 理事 [illegible] 書記 全秀英

麗水郡南面安島漁業組合 組合長 金[illegible] 理事 [illegible] 書記 [illegible]

麗水郡南面 安島私立普通學校 設立者 金道祥

麗水港仲町 梅鳳商店 主任 丁根模

麗水郡麗水面 麗一館

附 愛信寫眞館

喪中欠禮 京城府[illegible]洞一三二 金性洙

朝鮮史研究草(二)

古史上東西兩字박구인實證

◇北京에서 申采浩

一、本草公布의因緣

自己의確信하는것이라고 꼭다올흔것이아니지만 自己는꼭올흔줄로 確信하는것이라야世上에公布할勇氣가 잇는것이다이篇은 나도내말의올코그름을알지못한다 다만多少의努力으로써이것을一般讀者에게올리노라

二、『東有樂浪』의是非

樂浪은 平壤의別名이오 平壤은百濟의西北이어늘 이제三國史記百濟本紀는溫祚王十三年條를보면『國家東有樂浪』이란一句가잇다 그리하야歷來史家의論題가되엿다 安鼎福은『樂浪이비록百濟의西北이지만 樂浪國(崔氏)盛時에江原道半幅이 거의樂浪의屬地가된故로 百濟가江原道部分의樂浪을 가릇처『東有』라하엿다』하고 丁茶山은『在의樂浪은 春川樂浪이오 平壤樂浪이안이니 대개春川의北貊崔氏가 崛起하야樂浪國이라稱하고매양新羅와百濟를侵함으로 新羅百濟兩國의初葉에보인樂浪은 모다春川樂浪이니 春川樂浪인故로『東有』라하엿다』하나 樂浪의本部가平壤인즉 百濟人이樂浪을泛論할때에 本部를捨하고그部分인江原道樂浪을 말할理가업슴으로 나는順庵先生의말을조치라아니한다 春川이漢의樂浪東部가되엿단말은잇스나春川을樂浪이라稱한때는업스며 또는三國史記에 據하면 新羅와百濟의初年에모다樂浪國의侵寇로因하야 非常히困苦하다가高句麗大武神王十七年에 樂浪을滅하고二十年에 樂浪을다시漢에게見奪함으로부터 樂浪의侵寇가 羅濟兩國史에보이지아니하엿슨즉 그各文에보인樂浪들이 곳一個의樂浪임이明白하며『漢이樂浪을取하야 浿水以南이漢에게屬하얏다』한즉 그樂浪들이 모다今平壤임이 明白하다 그리하야 나는茶山先生의말도 조치라아니한다 그러면『東有』의兩字를엇더케解釋하랴하느뇨? 次節에이를 同答하리라

三、三國史記에박구인東西兩字

三國史記에 西字가 東字로 박구인者가만흐니일을려면溫祚王二十三年에 馬韓王이 溫祚를 責하야갈오대『王初渡河無所容足吾劃東北一百里安之』라한바 百濟가 馬韓의西北인즉 馬韓의割與한百里地ー溫祚의初據한彌鄒忽慰禮城等도西北됨이明白하니『東北一百里』는『西北一百里』로作함이可하며 溫祚三十七年에漢水東北部落饑荒流入高句麗者一千餘戶浿帶之間空無居人이라한바 浿水는大同江이오 帶水는臨津江이니 漢水西北됨이 確然한즉 漢水西北部落이逃亡하여야 浿帶之間에居人이 업스리니『漢水東北』은『漢水西北』으로 作함이可하며 地理志에『新城國之東北大鎭』이라한바 新城은 高奴子가鮮卑를막고 李勣을 막던高句麗의西北要塞인故로 新唐書에도 『新城賊之西邊要鄙』라함이니『東北大鎭』은 西北大鎭으로 作함이可하다 以上의모든東字의 西字로作함을 因하야 나는東有樂浪도 西有樂浪으로 作함이 可하다하노라

四、東西兩字의박구인原因의假定

何故로 三國史記中에 西字의東字로 박구인者가 이다지만흐냐 만일當時의사람들이 日月의出沒하는東西의方向外지몰랏다하면 三國文明이 모다거짓말이 될뿐이며 或은當時의抄寫者나 後世의印板者가 誤함이라하나 다른文字는 그러차안한대 홀로西字만 조차단이면서 東으로 誤할理가업스며 또는西字의字形과 비슷한『兩』字나『酉』字나『而』字『亞』字等으로 誤寫치안코 오즉字義의反對되는 『東』字로 誤寫할理도업스며 또는反對되는 이제工巧히 三四處에나 同一한『南』字나 北字로 誤치안코 한『西』字로만 誤하엿다함도 不成의說이라 그리하야 나는『우리말에 東方을『새』라하고 西方을『한』이라함으로 三國時代의學者들이 漢字를取하야 吏讀字를 맨들때에 西字의音『서』를 取하야 東을西로쓰며 그대신에 西를東으로쓰어 東西兩字가 박귀엇스며 史家가史冊을지을때에 그박구인 東西兩字를 쓰슴으로古史上에 박구인 東西兩字가잇슴이라』는 假定을 세웟노라

五、假定부터實例

그리다가 三國史記의地理志를讀하니 『迦瑟羅一名河西良』이라하엿다 迦瑟은『가시』요『가시』는 東의義니 高句麗는濊等地를가시ー(迦瑟)이라하고 新羅景德王以後에는 今江陵에 가시ー(迦瑟)이라한者니 그러면 高麗의 가시는 高句麗東北의地名이오 新羅의가시는 新羅東北의地名인즉 가시를 河東良이라하지안코 河西良이라함은 東의義를 取치안코 西의音을取함이니 이것이 吏讀字의 東字를 西字로 박구어쓴實例가안이냐 이로써 나의第一假定을 確證하엿노라 高句麗에서 祭天大會를 東盟이라稱한바 東盟의一名이 東盟이니東盟은 그音이한봉이되지며 한봉은大會의義니 한봉의『한』을音으로 쓰면 東盟의『東』이되려니와 義로쓰면 西가될터인데 이제 西盟이라하지안코 東盟이라함은 吏讀字의西字를 東字로 박구어쓴實例가안이냐 이로써 나의第(二)假定을 確證하노라

六、兩種史冊의不同

그러면 古史上에 東西兩字가 모다박구이지 안코 박구인東西兩字가잇는以外에박구이지안한東西兩字도잇슴은 何故이뇨? 대개三國時代에 吏讀字로쓴史冊과漢字로쓴史冊이잇섯나니 假令百濟史에王斤王(本紀에三斤王이라함은誤板) 一名을壬乞王이라하니 一은 漢字史冊에서傳한名이면 他一은吏讀字史冊에서傳한名이며 三國遺事에 儒禮王의二名이 世(누리)利智王이라하니 一은漢字史冊에서傳한名이면 他一은또吏讀字史冊에서 傳한名이니 其他모든官名地名等의兩名잇는者는 다兩種史冊의쓰인名을 並傳한者며 盖蘇文傳에 『其父東部大人』이라하고 註에『或云西部大人』이라하엿스니 本文과註의引用한者가 이가치相反함은 兩者中의一이 漢文史冊에서出한同時에 他一은吏讀字史冊에서 出한것일지니 東部西部의分別하지 못하게됨이더욱 古史上에 東西兩字박구인것의 잇는實證이다

七、金富軾의糊塗

金富軾의三國史記는 이미漢文의著作인즉吏讀字의쓰인名詞나 方位가튼것을 모다改正치안함은何故이뇨? 金氏는荒粗孟浪한史家라 發岐와拔奇는一人의名의兩譯이어늘 金氏가一은高句麗史에 據하며他一은中國史에 據하야叅새 誤分하야兩人을맨들엇스며 薩水는三國時代가장有名한戰場이어늘 金氏가이를未詳地分에넣엇스며 이밧게도 이러한糊塗가 一二뿐안이다 金氏가吏讀文에 無識함으로모든알기쉬운國語의官名도 『吏言不知其意』라 自註하엿스며 게다가吏讀文排斥에 激烈하야 新羅三代에서친 詩歌ー三國遺事에적힌詩歌를 三國史記에는한작도쓰지안하엿스니 만일金氏가 前述한 人名地名東西等이 吏讀文의것인줄을 알앗더면모다排斥하고收入하지안하엿슬지니 엇지改正與否가 잇스리오그러면三國史記에 박구인東西等字의存在는누구의收拾이냐? 麗初의文士或僧侶들이 各種의古記를漢文으로 지을때에모든吏讀字의史冊을 譯出하는同時에그 不經意하는가온데서 偶然히遺漏하야 몃個박구인 東西兩字가 남아잇슴이라

◇이야기두마듸

借啣政丞

최북(崔北)은정조조(正祖朝)쎄사람으로본(本)이어대인지 조사이누구인지 세상에서 아는이가업다 한편눈은멀엇슴가 모르거니와 글시잘쓰고 글잘짓고그림잘그리고 술잘먹고몽게상(乖僻相)하든사람이다 하로는어느재상(宰相)을차저갓더니그집청직이가주인대감(主人大監)에게드러가서『최직장』(崔直長)이왓슴니다하고 거래를하엿다 그것은최북『崔北』이 가왓다하잔즉 조곰미안하기써문에 그중에낫분벼슬일홈(官職名)직장(直長)을부처서『최직장』이라고한것이다

『최북』 최정승(政丞)이왓다고아니하고 최직장이왓다하니 웬일이냐?

『청직이』 언제정승(政丞)을하엿습니가?

『최북』 언제직장(直長)은하엿더냐차함(借啣)을할바에는정승이라고나할것이아니냐?

死後佛兒

양녕대군(讓寧大君)은태종대왕(太宗大王)의맛아들로서 세자(世子)가되엿섯다 여러아오중에 충녕대군(忠寧大君ー卽世宗大王의潛邸號)이성덕(聖德)이잇스심을알고거짓미친톄(佯狂)하야세자위(世子位)를충녕대군께양도하엿다 그의다음아오 되는효녕대군(孝寧大君)도혐의를피하기위하야불도(佛道)를조하하는데하엿다 하로는 효녕대군이 뒤에가서 죽으면부처가될것가치정성스럽게레불(禮佛)을하는데양녕대군이 것헤안저서 술과고기를압부르자신다

『효녕』 형님은부처님압헤서 술고기를 잡수시지안는것이 올슴니다

『양녕』 생전에는님금의형이되고사후에는부처의형이될터이니가나밧게즐거운사람이업는걸

義城郡邑內鍾路 支那料理 義品樓 主 權世東
義城郡邑內鍾路 信昌商店 李在英
義城郡邑內鍾路 各種印版業 泰成堂印章舖
義城郡邑內鍾路 印版業 趙鏞和
義城郡邑內 代書業 孫東洙
義城郡邑內 代書業 吳憲洙
義城郡比安公立普通學校 職員一同
義城郡比安面事務所 職員一同
義城郡比安面東部洞 朴甲秀
義城郡比安面西部洞 李鍾燮
義城郡比安面西部洞 孫東漢
義城郡比安面東部洞 林亨燮
義城郡比安面雙溪洞 代書業 朴厦郁
義城郡安溪面事務所 職員一同
義城郡安溪金融組合 職員一同
義城郡安溪公立普通學校 職員一同
義城郡安溪市場 馬春威
義城郡安溪市場 醫生 金洪洛
義城郡安溪市場 綢緞布木雜貨 扶增順
義城郡丹北面事務所 職員一同
義城郡丹密面 同明學院

義城郡丹密面事務所 職員一同
義城郡 多仁公立普通學校 職員一同
義城郡鳳陽面事務所 職員一同
義城郡桃李院市場 綢緞布木雜貨 金致錫
義城郡桃李院市場 綢緞布木雜貨 金靈根
義城郡桃李院市場 馬南基
義城郡桃李院市場 金星輝
義城郡安平面事務所 書記一同
義城郡 安平面長 金炳斗
義城郡安平面 農民組合
義城郡安平公立普通學校 職員一同
義城郡丹村面事務所 職員一同
義城郡點谷公立普通學校 職員一同
點谷面長 金渭允
義城郡點谷面松內洞 朴漢哲
義城郡點谷面沙村洞 柳時璟
義城郡點谷面尹岩洞 南植佑
義城郡玉山面事務所 職員一同
義城郡舍谷面 東明講習所
舍谷面長 李祥坤
義城郡舍谷面陽地洞 吳鎭泳

義城郡舍谷面陽地洞 申煥宇
義城郡舍谷面梅谷洞 鄭元秀
義城郡春山面玉井洞 學校評議員 朴大煥
義城郡多仁面事務所 職員一同
義城郡邑內鍾路 綢緞布木雜貨 德順和本店 靑松支店
義城郡邑內 代書業 吳性洙
義城郡邑內 丁又一
義城郡邑內 柳一佑
義城郡邑內 醫師 金教貞
義城邑內 義城金氏譜所 金世東
義城郡邑內 精米業 李元錫
義城郡邑內市場 穀物貿易 柳萬壽
義城郡邑內鍾路 綢緞布木雜貨 泰和商店
義城郡邑內鍾路 支那料理 會英館
義城郡邑內布教堂 法師 許烈
義城郡邑內 義城面長 李堂
義城郡邑內 吳致周
義城郡邑內 金圭権
義城郡邑內 金基泰
義城郡邑內 吳載洙
義城郡邑內 吳相圭

義城郡邑內 吳周泳
義城郡邑內道東洞 金舜和
義城郡邑內道西洞 金圭福
義城郡邑內睦竹洞 吳義洙
義城郡邑內元堂洞 金在振
義城郡邑內元堂洞 金在鳳
義城郡邑內市場 穀物貿易 金圭喆
義城郡邑內市場 魚物都家 吳在鳳
義城郡邑內 吳丙洙
義城郡邑內 學校評議員 吳夏洙
義城郡邑內 朴琪元
義城郡邑內 公醫 鎌田方
義城郡邑內 諸印刷業 義城印刷所 振替口座京城一一八七六番
義城郡邑內市場 酒造業 共榮社 吳泰泳
義城郡邑內市場 酒造業 義城酒造場 金淳恒
義城郡邑內市場 麯子貿易 麯子商會 金麟澤

義城郡邑內市場 綢緞布木雜貨 廣興泰 主 秋鏞璡
義城郡邑內鍾路 各國自轉車販賣並修繕 廣興自轉車店 主 裵聖瀚
義城郡邑內市場 綢緞布木雜貨 泰興東本店 鍾路支店 靑松市場支店 靑松鍾路支店 英陽市場支店
義城郡邑內鍾路 文房具 大陸號 主 丁震一 金炯遂
義城郡邑內市場 穀物貿易 金熙均
義城郡邑內 [illegible] 文仙玉
義城靑年會
義城少年團
義城衡平社
義城官公吏一同
義城郡邑內 金圭壽
本社義城支局 金英俊
義城郡比安面西部洞 李昌雨
本山義城孤雲寺 住持 李萬愚
瑞興面事務所 面長 書記 具運燮 盧鎭瀾 陳宗文 韓元淳 崔世元 許永煥 康順昌 金要植
瑞興邑內 朴東根
瑞興邑內 實業 金光善

瑞興邑內 李鳳夏
瑞興邑內 綢緞布木商 東聚興
瑞興邑內 綢緞布木商 朴春東
瑞興郵便所 所長 佐渡龍作
瑞興郡禾同面 面長 文彩龍
瑞興郡禾同面新幕 文龍澈
瑞興邑內 生牛貿易 李健弼
瑞興邑 金瀅杓
瑞興邑內 社友 時計店 鄭祉友
瑞興邑內 金榮時計店
瑞興郡禾同面新幕 製靴商 金顯海
瑞興邑內 學務委員 李光翼
瑞興邑內 道評議員 張大翼
瑞興邑內 學務委員 許洹
瑞興公立普通學校職員一同
瑞興邑內 李成魯
瑞興邑內 元植
瑞興邑內 代書業 李在乾
瑞興邑內 實業 崔允璜
瑞興邑 崔江植
瑞興新幕 代書業 崔應善
瑞興新幕 李相麒
瑞興新幕 洋服店 主 李鳳鎬
瑞興邑內 黃永範
瑞興邑內 醫生 李忠祿
瑞興邑內 代書業 洪思明
瑞興邑內 實業 金學淳
瑞興邑內 綢緞布木商 許灒
瑞興邑內 李春三
瑞興邑內 金致璞
鳳山郡土城面馬洞里 鳳東靑年會馬洞支部 支部長 李基若 總務 姜喜一 幹事 李敏傑 幹事 文貞鳳 書記會計 尹夢龍

瑞興邑內 自轉車店 主
瑞興邑內 自轉車業
瑞興邑內 崔玩燮
瑞興邑內 代書人 吳成萬
京義線車輦館 鐵道貨物取扱運輸業 朝鮮運輸部 桂炳準
京義線車輦館 東濟醫院 朴利欽
京義線車輦館 支那燒酒製造 麯子販賣 物貨貿易 鐵道貨物取扱運送部 永成釀酒商會
京義線車輦館 忠和醫院 鄭宗成
京義線車輦館 [illegible]
京義線車輦館 金剛寫眞部 李 朴應洙
京義線車輦館 穀物貿易委托商 邊甫亭
京義線車輦館 米穀業 三興商會 金應俊
京義線車輦館 穀物雜貨商 永信商店 金昶奎
京義線車輦館 綿布木日用輸入商 崔謙
京義線車輦館 穀物販賣貿易商 金大鉉
京義線車輦館 米穀貿易委托販賣商 金允玕
京義線車輦館 滄山醫院 尹希
京義線車輦館 元

無産階級의運動方向

＝山川均＝

一

日韓合併以來歷代의政府가朝鮮統治의根本方針으로取扱한것은日鮮融化一言이다 이러한統治政策은 今日外지果然如何한成果를내엿스며 日鮮人間에는 어느程度의融化가實現되엿는지나는 元來그것을對答하려고하지는안는다 그러나그동안에 우리로서看過하지못할事實이잇다 그것은무엇이냐하면歷代政府의朝鮮統治政策이 日鮮融化에成功하엿던지失敗하엿던지또는그政策이日本에對한朝鮮人의敵意를緩和케하엿던지그렁치안하면 그敵意를 더욱深刻케하엿던지 그러한事實과는何等의關係업시 資本主義의必然한發展인經濟上作用으로써 日本의無産階級과朝鮮의無産階級을結合케하는 經濟的利害의一致라는連鎖가해를따러구더지는事實이다

二

每年日本에서 朝鮮으로移入되는 工業製造品의統計를보면 大正六年에는綿織品을비롯하야 其他織物類가二千七百萬圓이엿던것이 大正十二年에는 五千二百萬圓에이르럿고 衣服과附屬品은二百萬圓에서 千二百萬圓으로增加하엿다 이와가치日本內地의工業製造品은 무서운勢力으로朝鮮으로드러간다 그래서朝鮮人은朝鮮內地의生産品을使用하라는國産獎勵運動이이러나기도하나 元來의大勢를阻止할수업슴은勿論이다

日本內地의工業生産品이거침업시朝鮮에드러가면 土着의小工業이 이러한工業品과競爭할수업슴으로土着의小工業은漸次滅亡되거나 僅々히남어잇는것은今日以上殘酷하게勞働者를搾取함으로써겨우滅亡의運命을免하려고한다 따러서土着의小工業에雇用되는朝鮮勞働者의生活은今日以上悲慘하게될것이다 이러한土着工業이滅亡되는反面에는더욱大規模의工業이 日本의資本으로써이러날것이니 이러한境遇에는 朝鮮勞働者는 日本勞働者를使用하는 同一한資本家階級에게雇用이될것이다

그러나朝鮮內地에잇는新工業의發達은急速하지못할것이다 그러함으로朝鮮의勞働者는勞働을求하러日本에連續드러온다 이에朝鮮人勞働者는 日本人勞働者와가치共通한資本에 搾取를當하게된다

三

農業은 엇더하냐하면 爲先第一누구던지 알수잇는것은朝鮮에서 消費되는米에比較하야 日本內地에移入되는米의分量이漸次增加된다는事實이다 即大正二年에는米의收穫(移入을合하야)이九割二分이朝鮮內地에서消費되고 日本에移入된것은 겨우八分이더니 大正四年에는이比例는八割八分과 一割二分이되고 大正十年에는七割八分과二割二分이되고 大正十二年에는七割四分과二割六分이되엿다 그러한데朝鮮의人口는 해마다增加되는現狀이라한다 이것은무엇을意味하는것인가 即朝鮮의無産農民은 벌서彼等이耕作한米를食料로할수업고粟과稷과如한雜穀을食料로하는比例가 漸々增加하는事實을證明하는것이다

無産農民의生活이漸々悲慘하여질뿐아니고 小規模의地主는무서운勢力으로 僅少한土地외지도이러버리엿스니 이小地主가이러버린土地는債權者인金融資本家의掌中에集中된다 昨日에朝鮮小作農을搾取하고잇던小地主는 明日에는日本內地의小作農과가치共通한金融資本家에게搾取를當하는 小作人이되거나 그러치안하면 居地를떠나서日本內地의勞働者와同一한資本家에게搾取를當하는勞働者가되지안흘수업다

四

이와가치資本主義의發展이라는經濟上作用은 歷代政府의統治政策如何에不拘하고 日鮮의無産階級을 分離하지못할經濟的利害의一致로써 融合케하는것이다 ● 이事實은아직充分히一般民衆의意識에박히지는못하엿스나 味淸한事實은반다시人間의熱烈한意識이되여 反映되지안할수업는것이다

資本主義의發展이指示하는方向은 곳日鮮無産階級運動의取할方向을가르치는것이다(完)

東洋婦人의解放

山川菊榮

東

洋婦人이라하면 封建的男尊女卑의因襲과奴隸的生活에對하야 한마듸라도反抗소리조차 못하는無智無氣力의化身처럼 알아왓습니다 만은 數千年동안 긴睡眠속에잇든 東洋民族도 資本主義經濟의發達과함께 婦人이家庭을떠나서生産的勞働에從事할必要가잇게됨을따라 婦女間에 눈이어옴으로 婦女解放의要求는 엇지할수가업게되엿습니다 더욱資本主義의諸强國에게 民族의獨立을 쌔앗기며 또는威脅밧는民族사이에는 國民全體間에퍼지는 民族解放運動이 必然으로 婦人의政治的自覺을 催促하게되고 또 그自覺으로支持하게되엿습니다 最近中國婦人의政治的活動과갓흔것은 適例라할것입니다 帝國時代에 『러시아』의束縛을벗어獨立한『핀란드』共和國이 獨立하는同時에『핀란드』에서는 처음으로 男女平等의普通選擧가 認定되야 歐洲大戰前에 벌서 多數의婦人代議士가생긴것도 一例입니다

歐

洲大戰은 婦人解放에現著한刺戟을 주엇습니다 大戰時에 男子를代身하야 國內의産業을維持하든 西洋婦人은 戰後에 政治的으로 社會的으로 크게勢力을增大한것이 그原因의하나이며 帝國主義의桎梏을脫出한勞農露西亞가 國內의少數民族의獨立을承認하는同時에 市民으로男女의權利平等을認定한것이또한原因의하나이엿습니다 勞農러시아가『婦人의解放이업시는民族의解放은 할수업다』하는標語를엇어 原始的인非野蠻生活을 繼續하는 大家族制度下에잇는諸民族의婦人間에 여러가지敎育機關을設置하야 智識을啓發하는同時에 社會的으로經濟的으로 生活을一新케하야 그들을近代的市民을 만들라고努力하는事實은 임의 一般이아는바입니다 二三年前『바쿠』市에開催된東方民族婦人大會席上에 多數한未開民族中에서 代表로온婦人들은 그들의過去의屈辱的象徵이든面紗『벨』을 얼골에써가지고 出席하엿습니다 婦人의道理가 아니라고하엿습니다 面紗를 벗어 한곳에모하 불살라버리고 解放運動을紀念하며 將來의奮鬪를 盟誓하엿습니다

資

本主義經濟는 婦人을封建的家族制度와 家長專制에서分離하야 國民經濟의重要한要素로보아 獨立機會를준것이 婦人에게는分明히 救援의길을 열어준것입니다 그러나資本家가 婦人을解放한것은 決코婦人을利用하라는것이아니고 돈모흠手段을 삼은것이엇습니다 敎員이나事務員이 男子代身에 女子가使用되는것은『갑이 싸다』는것이 第一理由입니다 더욱女工은 極端의無智와服從을 利用하야 搾取할수잇는대로 搾取하는것이常事입니다 機械의精巧한것도업고 天然의富源이豊富한것조차 업는日本工業은 오직『갑싼』勞働者 그中에도婦人勞働者를 搾取하야繁榮하여왓습니다 그러나 最近에는 日本勞働者組織이 進步되고 自覺이놉하짐을따라 無制限의搾取에對한反抗이 漸次有力하게되엿습니다 女子勞働者自身에는 아직組合組織이 發達되지못하엿스나 임의一般輿論으로 女子勞働者를保護할 必要가 認定되엿고 또工業勞働以外方面에도 女子의勞働範圍가擴張되야 十年乃至二十年以前과갓치 低廉한女子勞働을 無制限으로補充할餘地가 대단히 적어젓습니다

數

年來로 日本紡績工場에 朝鮮女子가만히보이게된것은 이러한理由입니다 日本紡績業者가 朝鮮의貧寒한農村을 도라다니며 연약하고 나아갈바를 몰라헤매는 無智한少女들을 붓들어다가는 機械와갓치 부려서 그들의勞働을搾取한結果 只今日本에는 以前과 가치『갑싼』賃銀으로 얼마든지 勞働하여줄少女가 만치못하게 되야 이번에는朝鮮의가난한少女들을 차자다니게되엿습니다 日本女工이 갑싼賃銀과 함께 工場에서 엇던것은 過勞와結核諸症과不姙症과 또는夭死입니다 이悲慘한運命이 只今朝鮮姉妹에게外지미치게되엿습니다 只今日本의無産階級의婦人은 勞働組合과無産階級의政黨을通하야 無産婦人의解放에 必要한 여러制度를設置식히라고합니다 同時에 民族과性別을不問하고 同一職業에共通한最低賃銀制度와 産前産後의勞働禁止(勞働은하지아니하여도 如前히給料는받을것)과 母親과幼兒에게對한生活費支給등을 當面의要求로提出하고 우리들은 無産階級婦人大衆을 糾合하야 解放運動을促進하라고합니다 勿論婦人問題의徹底的解決은 이러한部分的改善으로 實現될것이 아닙니다만은 우리는遠大한徹底的解決의目標로 갓갑게가라는第一步로 몬저모든婦人이 婦人의共同利害下에結合하야 그것으로政治的自覺을促進하도록 各個婦人에게 直接으로 密接한利害關係잇는當面의改良策을 提出할必要가 잇습니다 그러고이러한當面問題에對하야는 日本과朝鮮의分別이업시 一般으로男女無産者의利害가一致하는것임니다

近

東婦人은面紗를 불살라버리고 解放의길로 突進할意思를 보엿습니다 家族制度와資本主義라는面紗때문에 二重三重으로 얼굴이덥혀眞理와面接할수업는 우리極東婦人도또한 그들보다못하지아니한 勇氣와決心을가지고 우리들自身의길을 걸어나가지안으면 아니됩니다 우리들의길은 멀고險합니다 朝鮮에比하야훨신 初等敎育이普及된日本에서도 女子勞働者는 勞働組合의機關誌조차 읽을힘이업는이가만코 假名字도쓰지못하는이外지 잇습니다 그러나婦人勞働者는 대단한困難과苦生을하면서 漸次그들에게自覺과團結의種子를 뿌리는中입니다 나는朝鮮婦人先覺者도또한自國姉妹에게 極히困難하고苦痛만흔그리고 迫害밧게는 아모것도所得이업는啓發運動에一身을밧처 未來의光明을비최여주엇스면조켓다고합니다『未來는 우리의것입니다 다시말하면婦人과勞働者의것입니다』 하고 獨逸社會民主黨首領『베벨』은 부르지젓습니다 우리는그빗나는未來를 子孫에게남겨주기위하야 現在의暗黑의 面紗를 벗어바릴勇氣와 犧牲的精神이 必要합니다 日本의無産婦人과

朝

鮮婦人이 서로손을잡고 이險한길을 밟아나아갈때에는 그團結한힘만으로도 벌서勝利는折半이나어든것입니다 最近外지半野蠻時狀態이든 近東地方婦人은 勞農政府婦人解放에 刺戟을바다임의活動을開始하엿습니다 迷信의化身이라고하든 近東의多數婦人보다도 以下되는 奴隸生活에滿足하는이는 極東婦人일것입니다 이婦人의解放이우리自身의光榮잇는使命이 안임닛가

多賀君家受大福風雨
時節五穀熟四夷服常
樂無極天下復

昔既堂好漢鏡銘字每多集句不書之此其一也戱擬高句麗廣開土王碑字法以書其文 葦滄

葦滄吳世昌氏試筆

全州高砂町四三五 全州醫院 醫師 申鉉彰
全州南門內 普和堂藥局 朴泰鎬
全州 紀全女學校 職員一同
全州西門外 예수敎會
全州幼稚園
全州大和町 京城婦人洋服店 主任 趙德珠
全州高砂町一二四 各種合竹扇各色太極扇 各色梧葉扇製造所 主任 李完鍾
任實邑內 金琮熙
任實邑內 任實醫院 醫師 李善鎬
全州大和町 株式會社 三商會
全州本町 海陸物産委託專門 㕁一商會 主任 朴正一 主務 柳烈鎬
全州大正町二丁目一三番地 扇子及尾扇各種尾扇 梧葉扇各種製造都散賣 李正云
全州大正町三丁目 全一洋服店 朴勝勳
全州大和町 齒科口腔外科 林醫院 齒科醫學士 林澤龍
全州本町 綢緞布木商 五有商會
全州大正町一丁目六一番地 內外國各種紙物貿易及油物 完興泰紙物商會 主 陳相皓 振替口座京城一〇四七九
全州大正町三丁目 中央洋靴店 主 李傑 電話三五七番
全州本町二丁目 全北自働車商會 電話長二九四番
全州八達町 南一旅館 全順煥
全州本町 ㊍完成運輸組 長電話一四四番
全州高砂町八六 辯護士 李漢麟
全州大正町一丁目 濟南理髮館 朴薔洙
全州慈惠醫院 金奎鍊
全州慈惠醫院 金俊述
全州完山町 張雲錫
全州完山町 皮革貿易商 金光南商店 金洪福
全州大正町 完興洋靴店
全羅北道全州 株式會社 三南銀行
全州大正町 全井自働車部 主 張應圭 電話一二一番
全羅北道廳食堂
全州券番藝妓一同
全州大正町 綢緞布木紙物各種貿易販賣商 李仁基 電話三一九番
全州 新興學校職員一同
全南順天松光面 松廣寺
全南順天雙岩面 仙巖寺
全南順天本町 株式會社 湖南銀行順天支店 支配人 張基昌
全南順天 松光面事務所
全南順天 住巖面事務所
全南順天 道沙面事務所
昌城 公立普通學校 職員一同
昌城郡南門外 姜尙潤
昌城郡南門外 濟東院
平北昌城邑內 福住旅館
昌城邑 代書業 許泮
昌城南門外 新正旅館
昌城坪路洞 穀物貿易商 李滄信
昌城面 面長 金若鍋
昌城南門外 藥種商 李致瑀
昌城森林保護區 職員一同
昌城郡內 日鮮館 主 裵爛世
昌城郡門外 日鮮館妓生 金福順
昌城郡 天道敎宗理院一同
昌城郡邑內 東亞日報昌城分局 分局長 朴鳳祚
義州郡光城面 事務所 面長 姜利煥 書記 申濟瑞 同 金正元 同 劉正明 同 金李榮 同 林田祥 同 高天□
義州郡威遠面 面長 白用廷
義州公立普通學校 校長 三村登
咸平郡大洞面鶴校里 李康翰
咸平郡大洞面 事務所
咸平郡新光面柳川里 金東振
河東郡花開面 雙溪寺住持 孫基烱
河東郡花開面雙溪寺 私立普明學校
河東郡岳陽面鳳亭里 李承楚
河東郡岳陽面鳳亭里 鄭朱永
河東邑內 裵順明
河東邑內 南一物産株式會社
河東邑內 南一物産株式會社 專務取締役 李輔衡
河東邑內 金物商業 山崎私藏
河東邑內 東拓駐在所 李□□ 矢田□□
河東邑內 南勝右衛門
河東邑內 大東醫院 姜錫根 電話四五番
河東郡花開面塔里 河炳基
河東郡南面 金宅魯
河東面牧島里 黃鍾渙
河東面新基里 金宗權
河東面新基里 金基淳
河東面新基里 金在泰
河東北川面玉亭里 朴弼鍾
河東北川面玉亭里 米穀商 鄭泰璋
河東郡北川面玉亭里 李炳晃
河東郡北川面稷田里 文永賀
河東郡北川面 李正洪
河東郡北川面事務所 職員一同
河東郡玉東面正水里 鄭□永
河東郡玉東面 金鍾卓
河東郡玉東面事務所 職員一同
河東郡玉東面 河楨源
河東郡花開面 雙溪寺
河東邑內 和洋雜貨運動具一式 加藤後輔
黃州郡黃州面禮洞里 李之松
黃州郡黃州面城南里 半島木物工社 主任 林□鉉
黃州邑內 濟世病院 醫師 王丙河
黃州郡廳職員一同
黃州郡兼二浦市 代書業 主任 高秉龍
黃州邑 金成麗
黃州邑城南里 黃州木物商 主任 田在善
河東郡玉東面 梁環煥
河東郡玉東面 韓泰東
河東郡 趙鏞元
河東邑內 鄭道永
河東邑內 辛武烈
河東郡辰橋 尹在煥
河東郡辰橋 姜永熙
河東邑內 慶南銀行河東支店支配人 徐有聲
河東邑內 金澤洋服店 朴勝昊
河東郡岳陽面新興里 金祐達
黃州邑內 自轉車及時計店 主任 西田龜吉
黃州面長 尹□□
黃州自轉車部 主任 趙鼎鐸
黃州邑內 濟衆醫院 醫師 李東熙
黃州驛前 金運送店 主任 金鳳云
黃州邑內 正方病院 醫師 李道淵
黃州邑內 永信洋服店 主 金□□ 金□□
黃州邑內 樂園製造所 主 金錫珍
黃州邑城南里 三助商會
東洋拓殖株式會社 黃州小作人組合
黃州邑內 大山洋服店 主 吳淳根

初姙婦의注意할일

女醫師 玄德信

나의적은경험에비최여보아도 남이앓을가부쇠럽은것이넘우도만습니다 일일히사실을 들어말하자면 한도업겟습니다 엇재든지 우리녀자가임신과 생산에대하야 넘우도상식이 업습니다 그중에는 그만한것은 알만한이까지도 모르는이가만하 딱한때가만습니다 이때문에 귀여운어린애의목숨이 업서지게도 되고 어머니까지비명에 죽게됨니다 녀자로 임신과생산에대한 상식이업습은 대단한위험입니다 그러고남자편에서도이에대하야얼마만한상식이잇서야할줄압니다 서양사람들은이에대하야대단히주의합니다 만은일본사람도 첨으로 임신한녀자는 반듯시석달이나 다섯달이되면 의사에게진찰을밧아 여러가지로 안진을도모합니다 그러나우리조선 사람은그것을 부쇠럽게만 생각하고 가만히잇다가 해산할때가 갓가와오거나 위태한일이 생기게나되면 그때에야비로소 의사를불러오느니 약을쓰느니하니 딱한일이라하지안켓습닛가이것을생각하고 알지못하는 것도도라보지마니하고 아레에 몃마듸로 간단하게임신부에게 대한주의를 쓰는것입니다

一、애배고안밴것을알기

생리뎍으로녀자에게는스므드렛만이나또는삼십일만에한번식돌아오는경도가잇는것은누구나다아는바이며녀자치고는생리상(生理上)면하지못할일입니다 그리하야 월문녀자가 아모려도업시 경도를못하게되면 누구든지「애를뱃구나」하는 것으보통입니다만은 경도가 업다고 그녀자는애를배엿다고 분명하게 단언할수는업습니다 웨그런고하니 녀자가 애를배드래도 커유한두달은 여전히 월경이잇는수가 만습니다 경도가 업고라도 애를 배는수가잇는것은 해산한뒤에 한번도 월경을하지아니하고 태긔가잇게되는것입니다 그런데 음식이 밧고 아니밧으며 구역이 나거나 메식메식하든가 먹은것이 잘내리지안튼가 젓꼭지가 검어지든가할것가트면 의심업시 애를벤것입니다 이렇게 애밴것을 안뒤에는 그대로내여바리고 안심하야서는 아니됨니다 청당한곳에서 청당하게애를배엿는지 그것을분명히 알필요가잇습니다 다시말하면 자궁임신(子宮姙娠)이며 자궁외임신(子宮外姙娠)인지 또보통임신이라하드래도 자궁의위치가 엇더하며 자궁근처의 장긔(臟器)에 병이나업스며 자궁속에부스럼이든지 그밧게 이상한것이업는지 검사해야합니다 그러기에 애밴것을알면 즉시의사에게 진찰을밧아 뒤에념려가 업도록하는것이 뎨일조슴니다

二、골반이상

보통으로 애를 배엿다하더라도 골반(엉덩이뼈)에 조곰도 이상한곳이업는지 자세히 검사해야합니다 골반(骨盤)의압뒤와 좌우를잘살펴보아 골반이 좁다든지 또는골반이 너무납작하다든지하면 의사의진찰을 바다야합니다 웨그런고하니 골반이얼마큼 좁은것가트면 산모는혼자여러날고생하다가 애를날수도 잇스나 골반이대단히좁으면 의사가긔계로 애를쯔집어내든가그러치아니하면 배를 째게도됨니다 그러고또골반이적으면 태아의위치가 보통과 갓게되지못하고 가로되거나엇비스름하게되야 해산할때에손파발이먼저나오거나엉덩이가먼저나오게됨니다엇재든지 그럿케라도 애가나오기만하면 다행입니다 만은십상팔구는 그때문에어머니와 애의목숨이위태하게되는것이흔합니다

三、몸에 병이잇고업기

애가들면 보통으로 애를배지아니하엿슬때보다는 여러가지병이 겹치게되는것은 다아실것임니다 만은특별히 애를배면신장염(腎臟炎)이나 간장염(肝臟炎)이생기기쉽습니다 두다리와 아래배에 부증이생겨 그때문에 어머니와 애의목숨이 위태하게되며 더욱본래부터폐결핵(肺結核)심장염(心臟炎)간장염(肝臟炎)각긔(脚氣)갓흔병이잇든부인이애를배게되면 병이 갑작히더하게됨니다 무론 병의정도에딸아서 중하고중치아니함은 잇습니다 만은엇지하엿든지 병이는몸에 애를배엿든지 또는애를밴뒤에 병이생겻든지 그것은무론하고 애밴중에 병이잇슬때에는해산하기까지 기달릴수가 업스닛가 애의목숨은 빼아사랑해라도식혀야합니다 그럿치가니하면 어머니의목숨이 위태하게됨니다 그러기에 될수잇는대로 병이나지 안토록 예방도할것은발할것도업스나 엇지되야 병이늘면곳치료하야 어머니와 애의목숨을구할것입니다

四、화류병의 주의

남녀간에 화류병이 잇는것은 가장불행한 일입니다 특별히매독은류산되기쉽습니다 요행이 해산이된다하드래도 애는 대다히허약하야 여러해살치못하고 죽는것이 보통입니다 만일매독의의심이잇슬것 갓튼면 부부는 혈액(血液)을검사하야확실할것갓튼면 누구나 다아는六〇六호주사를 마즈면 효험이잇습니다 애밴때에는매독주사를실혀하는이가잇습니다만은그때에는주사분량을애배지안앗슬때보다조곰적게하야마즈면조슴니다화류병에도 림질갓튼것은 대단히류산되기쉽습니다요행히격정업시해산이되드라도 애의눈에 림질균이전염되야 농루안(膿漏眼)이라는안질이생기면 평생을 압흘보지못하는장님이되게됨니다 엇지하엿든 화류병은 부모가되야 자식에게 주는가장큰불행입니다

五、애배는처음과 락태

애밴지한달이나 다섯달 되기까지는 놉내든가 넘어지든지흐리우든지하야 락태되기 쉽습니다 그럼으로 될수잇는대로는 긴려행이나 마차나 자동차갓튼것을 오래타서는 불행한일이생깁니다 심하면 자봉침이나풍류치는것이나 피아노나 춤추기나 해수욕이나 랭수욕갓튼것은로도 락태되기가 쉽기도하거니와 배안에잇는애에게 방해되는건만습니다 이것은 태모로잇슬세에만 그러한것이아니고 경도의슬때에도 주의하여야함니다고도한운동때문에 생식기에 조치못한병이 생기게되는 까닭입니다 그럿타고 애를배면만삭되개까지 가만히방안에만 박혀잇스라는것은 아니고 뎍당한운동을하며 신선한공긔를 마시는것이조슴니다 그럿치아니하면 뒤가조하게되며 몸이더욱 불쾌하며 따라서치질이되기쉽습니다

六、임신의주의

이우에말슴한것과가치애를배다음에도 한두달을 월경날함니다만은월경이아니고피나는것으주의하여야함니다그러고원인을알아서 치료하여야 할것임니다 또한가지주의할것은 뒤가주하다고설사하는약을 만히쓰면 락태되기쉽습니다 그리기에티가조할때에는 아츰에 일즉히차놉한잔식마시고될수잇는대로끄뵐을만히먹는것이제일조슴니다

洪原郡鶴泉 普通學校
教員 康祐淵 / 同 韓榮彥 / 同 金熙燮 / 同 姜吉求

洪原郡鶴泉面 事務所
面長 金基協 / 書記 林遇混 / 同 洪亨義 / 同 姜晋求 / 會計員 姜鏞極

洪原郡鶴泉面鶴山里 農業 郭吉鏞

洪原郡[illegible]賢公立普通學校
校長 山口淳淑 / 訓導 元弘涉 / 同 金明喆

洪原郡[illegible]賢面所
面長 李根涉 / 會計 李[illegible]新 / 書記 李有善

洪原好賢面 普賢學校

洪原郡好賢面所
會計員 朴在誌 / 書記 金[illegible]祿 / 書記 沈[illegible]德 / 同 崔炳鏞

洪原郡景浦面長興里 萬興商店 主 愼萬鳳

洪原郡景浦面松嶺里 張永三

洪原郡景浦面松嶺里 崔鍾俊

洪原郡景浦面松嶺里 李亨根

洪原郡景明學校
教員 金仁植 / 同 金成煮 / 同 金基鉉 / 同 金亮勳

洪原郡雲浦面中興里 中興醸酒所 金秉潤

洪原郡觀光學校 職員一同

洪原郡警察署 司法係主任 趙鍾勛

洪原郡州西面所 面長 韓準錫 外職員一同

洪原郡州西面鳳翔里 洪濟醫院 醫師 權斗經

洪原郡廳 職員一同

洪原警察署 署長 大和田勘彌

洪原郡州西面臨東里 宋虎醫院 醫師 宋泳近

洪原郡前津驛前 ㊄運送部前津支店 主任 鄭奎昌

咸鏡線前津驛前 合資會社 ㊉元興運輸組前津驛出張所 主務 金顯杓 朴在秀

洪原邑內 貿易及委托業 泰興商店
同前津驛前 運搬業 ㊆麥昌運送部

洪原邑 合資會社 德興商店洪原支店

洪原公立普通學校 職員一同

洪原邑內 奥野醫院 醫師 奥野朔三郎

洪原郡雲浦面 學校評議員 金秦植

洪原邑 最新式流行 日洋服店 主 姜錫振

洪原郡 育英學院 職員一同

新浦 新浦金融組合 理事 金榮祐

新浦 ㊒河南運送店 河載熙

新浦 ㊀丸北運輸組 張文禎 元源泓

陽化朝陽普校長 趙晉衡

陽化 綿緞布木海陸物産 貿易委託販賣 東興商會

陽化 雜貨商 李苕柔商店

陽化㊅大東運輸組支店 全明洙

陽化㊔陽信運送部 李炫宗、安千植

陽化㊀北鮮釀酒所 李鏞

厚湖 雜貨商 金石鼎

厚湖 元山燒酒支店 金啓鍾

厚湖 雜貨 李斗鋼

厚湖雜貨商 朴夏逢、高秉弘

新浦 康炯閏

全南順天 梅山學校

全南順天青年會內 昇平學院

全南順天 順天公立普通校

全南順天 梅山女學校

全南順天 別良面事務所 面長 金璨溱

全南東草面長 姜琪洙

全南順天 順天面事務所

全南順天長泉里 徐丙奎

全南順天稠谷里 金丙玉

全南順天幸町 金道熙

全南順天大手町 文具運動具和洋諸雜貨 青年商會 電話六三番

全南順天南門外 吳永植精米所 電話四一番

全南順天榮町 永順興洋服店

全南順天 光州地方法院順天支廳所屬執達吏職務取扱者 松井眞澄 弘松龜之惠

全南順天幸町 雜貨商 趙東軾商店 電話一一七番

全南順天幸町 順天理髮館 主 車宗鉉

全南順天幸町 岡屋號洋服店 店主 岡本龜藏

全南順天稠谷里 朝鮮土地株式會社 支配人 川道繁松

全南順天本町五七番地ノ二 順天金融組合 電四五番

全南順天本町 昇州金融組合 電五七番 振京五〇五四番

全南順天東門通 時代洋服店

全南順天本町 會席料理 明月館 田代富美

全南順天大手町 中野藥房

全南順天南門外 諸藥品教科書 花子藥房

順天邑內 李昊俊

孟山郡 煙草耕作組合 職員一同

孟山公立普通學校 職員一同

孟山郡封仁面 道評議員 朴用玩

孟山郡北倉市 金應初

孟山郡北倉市 仲瀨晴枝

孟山郡北倉市 代書業 禹公烈

孟山郡北倉公立普通學校 學務委員 徐鳳球

孟山郡北倉市 酒類製造 李贊夏

平南北倉郵便所 所長 砂金勘六

孟山郡北倉市 布木商 李泰和

孟山郡北倉市 理髮所 李鳳瑞

孟山郡北倉市 雜貨商 劉仁贊

孟山郡邑內 孟峰商店 李守文

孟山郡邑內 代書業 秦聲夏

平南孟山警察署 警部補 尹贊洙

平南孟山警察署 警部補 井上外幾雄

平南孟山郡警察署 巡查部長 佐藤武雄

孟山郡廳 庶務主任 井上忠一

孟山郡廳 財務主任 井山敏夫

孟山郡廳 方煥岳

孟山郡廳 金泰英

孟山邑內 順昌醫院 車世鎬

孟山邑內 紳士 方基元

孟山郡北倉市 趙元祚

孟山郡北倉市 皮物貿易商 李巨熙

孟山邑內 代書業 文炳魯

孟山邑內 貿易商 朴炳鉉

孟山邑內 天道教宗理院

孟山郡東面坪地里 鄭德化

春山矯風會

春山面長 金瓚

義城郡春山面玉井洞 朴在九

義城郡春山面玉井洞 金振圭

義城郡山雲面山雲洞 李泰大

義城郡山雲面開日洞 申載休

義城郡山雲面山雲洞 李鴻

山雲面長 李章埴

義城郡山雲面山雲洞 李泰業

義城郡山雲面山雲洞 金聲振

義城郡佳音面踏川市場 歸川金融組合 理事 金得洙

義城郡佳音面佳山洞 李觀植

義城郡召文面 面長 金熙淳

義城郡農會 副會長 申命煥

召文景德王陵 享祀稧

青松郡邑內 青松青年會

青松郡和睦市 縣西面長 金永佑

青松郡和睦市 縣西面書記 金禹錫

義城郡山雲面山雲洞 李泰喆

安州郡立石市 米穀雜貨及委托販賣並米穀業 永成商會 主任 崔用淳 金文鉉 魯松岐

安州郡立石市 博愛醫院 院長 高明秀

安州郡立石市 東亞日報社立石分局 分局長 高明秀 / 記者 朴贊鎬 / 同 朴贊得

安州郡立石面龍池里 曹國濂

安州郡立石市 泰興理髮館 主任 卞宗三 / 同 朱炳斗

安州郡立石里 商業 尹東彙

安州郡立石市 興昌商店 尹炳昌

平南安州郡立石面事務所 立石面職員一同

平南安州郡立石市 米穀雜穀貿易 商業委托 米穀委托販賣 高漢奎商店 振替京城九〇四七 電略(コ)ヌハ(三)

安州郡立石面汝法里 農業 崔泰淵

安州郡立石市 鎔進自働車部 申鎔湜

平南安州郡立石市 穀物貿易 米調製 委托販賣 如意商會

平南北倉金融組合 理事 岡村悌二郎 / 書記 申旬麟 / 鄭泰元 / 金應模

無名氏

平南孟山警察署 署長 我妻榮五郎

德川郡 蠶島面事務所 職員一同

孟山郡玉泉面 事務所 職員一同

孟山郡北倉市 昌盛商店 金利淳

孟山郡孟山面 事務所 職員一同

德川驛前 玄米業 崔泰植

平原郡松川面月峯里 申利彬

平原郡松川面松庭里 金榮燮

平原郡龍川面新興里 金希鮮

鐵道荷物取扱 米穀委托運搬業 鮮友同友加盟店 ㊉運送店 德川驛前 主任 安龍哲

德川驛前 各穀物雜物品配達 部內地方運搬業 新成荷車組合 主務 吳一龍

青松郡和睦公立普通學校 男職員一同

青松郡和睦公立普通學校 女訓導 金福蘭

青松郡和睦公立普通學校 女訓導 金分任

青松郡和睦市 綢緞穀物雜貨 金八能

青松郡和睦市場 綢緞布木雜貨 德順成

信川郡溫泉面 黃海道評議員 閔奎植

豊山郡廳 職員一同

豊山邑內安興商店 洪淳默

平南順川新倉市 貿易及委托業 永成商會 主 朴永洙

順川郡[illegible]山公立普通學校 訓導 鄭明[illegible] 金昌一

忠清南道 食堂員一同

忠南公州 中樞院參議 道評議員 金甲淳

元山水力電氣株式會社

青松郡廳內
宋文憲 金相鉉 金重鍵 申養善 金榮鎭 金浮旭 李沅珪 沈宜悅

平安南道廳 食堂員一同

南滿洲四平街 穀物貿易商 青木恂商店 電話一一二番 電略(ア)ヌハ(アツ)

南滿洲四平街北四條路 滿洲粟其他雜穀直輸出 鷄林洋行四平街支店 電話長四〇一番 電略ケイヌハ(ケ)

平安北道廳 高等官食堂員一同

南滿洲長春富士町三丁目 滿洲粟其他雜穀直輸出 鷄林洋行 電話長五五五番 電略ケイヌハ(ケ)

北青郡廳 職員一同

北青面 崇德普通學校 職員一同

北青邑 青海代書所 金仁鉉 金知洋

北青邑市場通 朴定祐商店

北青邑內里 金永夏醫院

北青邑南里 李南元商店

仁川 洪元杓

仁川 梁啓武

平壤府南門通二丁目 海陸物産委託販賣店主及貿易商 李元國 電話長七三〇番 電略리(又은)ツ

淸州郡淸州面本町三丁目 淸州金融組合

東萊南門通 大同精米所

東萊郡機張面大邊 靑年會會長 崔金石

東萊郡沙上面面長 崔明立 職員一同

東萊 續英會

東萊南門通 日新洋服店 主 朴在甌

東萊西門通 日新洋靴店

東萊西門通 東萊醫院 院長 許永祚

東萊郡鐵馬面 文斗鎬

東萊郡福泉洞 金奉相

東萊 林炳弘

東萊郡機張面漁業組合 鄭寅準

東萊郡鼎冠面 金鍾瑾

東萊 醫睦組合

東萊郡機張面侍郎里 周時銘

機張面金融組合 理事 李宰震

機張面松亭靑年會 會長 金守用

南面公普校 職員一同

東萊 尹相直

龜浦公普校 敎員 李鳳治

龜浦 張翼達

鐵馬面事務所 鄭根發

鐵馬面事務所 鄭鈴謨

鼎冠面禮林里 金振鏞

鼎冠面禮林里 辛錫奎

東萊郡日光面五成講習所 所長 金容俊

株式會社 東萊銀行 監査役 李震相

東萊郡鼎冠面 協議員 崔基壽

東萊郡日光面 崔翔得

東萊郡鼎冠面 面長 金鍾軫

東萊郡鼎冠面 東一學友會

東萊郡北面 梵魚精米所 主 金永奎

東萊郡鼎冠面 代書業 安縡浩

東萊郡日光面文中里 海倉精米所 主 崔鉉澤

東萊郡南面事務所 李相吳 金準佑 白玟永 姜文海 崔逢福 金栽淡

東萊郡北面 面長 書記 文湜周 李元柱 辛泳祐 金壽根 朴佑洪 黃載坤 朴在允

東萊警察署 署長 田村藤市

東萊郡機張面九德里 金琪俊

東萊佛敎布敎堂 車相明

東萊西門通 綿布商 金光商會

東萊郡南面佑里 靑年會會長 金化壽

東萊郡南面中里 靑年會會長 金斗輝

東萊郡機張面松亭里 盧性贊

東萊面面長 秋鳳燦 職員一同

京釜線龜浦驛前 慶南運送部

慶南銀行龜浦支店支配人 金命九

東萊郡龜浦面面長 盧性穆 職員一同

東萊郡鐵馬面 河柄祖

東萊郡長安公普校 岡義約 金應元 黃太圭 朴再芳

東萊郡長安面事務所 黃讓秀 鄭敬元 李珍玟 朴定和 張芝熙

東萊郡鐵馬面 鐵馬靑年會 社交部長 李俊植

東萊郡鐵馬面 鐵馬靑年會 庶務部長 吳斗煥

東萊郡鐵馬面 鐵馬靑年會

東萊郡 東萊靑年會

東萊郡鼎冠面 靑年會會計 吳海煥

東萊郡鼎冠面 東二學友會總務 朴一鳳

東萊郡鼎冠面 東一學友會會長 金鍾鐸

東萊郡鼎冠面 金鍾萬

東萊郡鼎冠面 金宋河

東萊 吳在倫

東萊郡鼎冠面靑年會總務 辛極星

東萊郡日光面面長 崔榮鴻 職員一同

東萊郡廳 職員一同

東萊 耆英會

東萊 梵魚寺 電話四二番

朝鮮慶尙南道東萊郡東萊邑內 東萊郡洋襪生産販賣組合 電話東萊四九番 發信略號(ト)文八(今)

東萊溫泉 東萊ホテル 電話二八番

株式會社 東萊銀行 專務取締役 金炯贊

株式會社 東萊銀行 電話一〇一番 一二一番

東萊 金秉圭 電話五一番

賀正 釜山府外沙下 合資會社 東洋平紐商會 主 朴相學

株式會社 東萊銀行 取締役 崔翔甲

慶尙南道評議員 李允榮 東萊郡

株式會社 東萊銀行 取締役 吳泰煥

東萊郡日光面 崔翔學

東萊郡南面 面長 金鳳甲

東萊城內 崔時鳳

公州維鳩里 植野醫院

公州維鳩里 維鳩鐵友會 會員一同

公州郡寺谷面虎溪里 金英鎭

公州郡維鳩 閔丙玉

釜山 香椎源太郎

東萊郡西面凡內里 朴文學

釜山草梁洞 物産客主組合長 具德汝

釜山 金玉姬

晋州郡文山面蘇文里 文山郵便所長 難波末雄

文山公立普通學校 代表者 掘內

晋州郡文山面職員一同 代表者 金景許

金谷面儉岩里區長 河台鎬

金谷面斗文里 金炯煥

金谷面儉岩里 河仁植

金谷面儉岩里 河海榮

晋州郡金谷面儉岩里 河海通

晋州郡金谷面儉岩里 河炫德

晋州郡金谷面儉岩里 河永植

晋州郡金谷面斗文里 鄭致薰

晋州郡金谷面東論里 金武旭

晋州郡金谷面 公立普通學校 職員一同

晋州郡金谷面事務所 職員一同

晋州郡寺奉面武村里 鄭次根

晋州郡寺奉面事務所 職員一同

晋州郡琴山面東沙里 金成爲

晋州郡琴山面松栢里 長老敎會執事 金文且

晋州郡琴山面松栢里區長 金鍾煥

晋州郡琴山面長沙里 姜齊熙

晋州郡琴山面東沙里 李基容

文山金融組合監査役 姜元圭

晋州郡琴山面中川里 琴山公立普通學校 職員一同

晋州郡琴山面 面職員一同

晋州郡晋州面上鳳里 洪斗杓

泗川郡昆明面本村里 朴熺柱

泗川郡西浦面仙田里 李宅珪

晋州郡 水谷面 職員一同

河東郡玉東面良邱里 鄭然龜

晋州郡一班城面倉村里 朴昌錫

晋州郡一班城面倉村里 李慶鏞

晋州郡二班城面荷谷里 鄭泰麟

晋州郡智水面淸源里 李吉浩

晋州郡智水面勝內里 許萬龜

晋州郡智水面 私立淸源講習會

晋州面長 柿部實之

晋州 株式會社 晋州商友會 電話三二番

晋州煙草元賣捌株式會社

晋州郡平居面貴谷里 鄭泰驥

晋州 晋州自働車組合

晋州 慶尙南道金融組合聯合會

晋州郵便局員 俱樂部

晋州私立樂園女學校 校長 哥佛蘭西 敎員 沈英燮 同 丁錫祿 同 金点守 同 崔銀峯 同 安嚴全 同 朴德實 同 羽田野二江

晋州私立光林學校職員一同

晋州第一夜學會 會長 徐相弼 講師 姜信甲 同 徐永憙 同 權戰成 同 朴南鍾 同 李昌均 同 朴正煥

慶南公立師範學校職員一同

晋州公立農業學校長 增原薰三

晋州面內城洞 護國寺崔月峯

晋州榮町 晋陽商會

晋州面大安洞 花乃家理髮館 崔東潤

晋州中安 海陸物産問屋貿易 賓夏商店 主 朴起用 電話三二三番

晋州面飛鳳洞 鄭允根

晋州面飛鳳洞 鄭泰鎭

晋州面飛鳳洞 鄭慶鍊

晋州 鄭相珍

晋州面上鳳里 趙鏞權

晋州面中安洞 崔衡鎬

晋州 朴在華

晋州 李相夏

晋州 徐允甫

晋州面平安洞 鄭桐錫

晋州 鄭載華

咸陽郡 姜渭秀

晋州城外 永和院藥局 趙鏞泰

晋州面大安洞 藥材草材商主 朴文滈

晋州郡集賢面長 金溶璹

晋州城外 米穀雜穀及海陸産物肥料委託販賣商 鄭相彦商店 電話二四三番

晋州郡平安洞 朴容駿醫院 電話二六番

晋州城外 晋陽醫院 電話三六番

東亞日報水原支局 支局長 高仁寬

晋州面大安洞 藥種及雜貨商藥材貿易商 元準玉

水原慈惠醫院 食堂員一同

晋州金融組合

晋陽金融組合

晋州殖産銀行支店

晋州無盡株式會社

晋州第一公立普通學校 職員一同 校長 井上眺吉

晋州郡廳員一同 郡守 山下正道

慶南道廳員一同

晋州城外 世慶齒科醫院 院長 邊世熙

晋州中城洞 福盛旅館 電話六五番

晋州面中安洞 徐相弼

晋州郡奈洞面□山里 金琪部

山淸郡新等面丹溪里 鄭秀萬

晋州郡水谷面士谷里 河泳珍

晋州 金斗台 (喪中欠禮)

和田知事가 妥協條件을提出
移轉後에代償的施設로 絕對不應할委員側態度
◇移轉防止運動의其後

慶南道廳移轉反對에對하야는 屢次報道하는바어니와이에去十二月十七日부터京城에열닌知事會議當時에慶南和田知事는晉州의今後를爲하야個人으로總督에게諸般施設에盡力이업도록말하야보겟스며또한總督府에서도道廳移轉後晉州의將來發展에支障이생기지안토록무엇이던지產業的으로道廳移轉의代償的施設을考案中이라고하든터인바知事會議를맛치고도라온和田氏는엿태것아모말업시다가『移轉取消나또는延期는絕對로될수업다』고總督은말한다』고하며代償的施設도아직말이업다고하더니 去十二月 二十七日에晉州繁榮會幹部를와달라고하엿슴으로防止同盟會委員側[illegible]諸氏外五氏가知事를訪問한바和田知事는『여러분은移轉發表가된이래 防止運動을猛烈히하고잇스나임의總督府에서한번決定한以上은取消나或은延期等은絕對로될수업는것이明確한일인즉속然한防止運動을中止하고移轉한그代에무엇이던지조흔施設을하야주도록하면 조치안으냐』고함으로 委員側은 『그러나우리市民은到底히이에應할수업다』한즉知事는『萬一道廳移轉의防止運動을中止한다하면移轉後代償的施設의腹案이잇스즉말하겟다』하고二時間假量이나運動을中止하라느니絕對로될수업다느니승강을부리다가結局解結을보지못하고委員側은一般市民에게이理由를널리알려회시하겟다하고도라왓는데소위和田知事의腹案이라는條目은다음과가튼條目이다

一、南江의治水計劃인데이는五六年의繼續事業으로十年後에는이工事費는八百萬圓乃至千萬圓이라하야竣功될터인바

二、南江鐵橋架設問題로四十萬圓의經費로今年早春부터着手하야滿二年의繼續的事業

三、道洞面 晉州面 南江下流水利組合設置計劃으로이는面積一千八百餘町步로今春부터總督府에依賴하야調査에着手케할터이며

四、晉州面과平居面사이의水害防止策

五、晉州의財團法人認可外지나고今年四月부터開校코자하는私立一新高等普通學校를道에移管하야道로經營할事

그밧게도두서너가지項目이엇섯는데委員側에서는이腹案의한가지도바랄바업다는뜻을말하고도라왓는바더구나朝鮮사람측으로는五個年間피와땀을흘려거우일웟슨一新高等普通學校道移管에對하야는도리혀憤慨하는터이며이腹案이나그밧게엇더한方策이라도代償은絕對로바라지안는다는결심이더라

緊急實行委員會
躊躇하든日人도畢竟一致
◇…憂愁에싸힌歲末의晉州

去十二月二十八日에移轉防止同盟會本部인玉月樓에서實行委員會를열고和田知事의代償施設腹案發表에對하야協議會를열고善後策을議論하엿는데日人側에서는或그것을慾望하는듯한意思를보엿스나朝鮮人側에서는絕對로反對의氣勢를보히여一時는場內의議論이如一치못하야紛糾하엿스나結局은어데外지던지移轉防止를끗外지實行하기로一致可決되야不遠間市民에게和田知事의發表를公布키爲하야市民大會를열고作定이며압흐로는더욱이目的을貫徹키爲하야〇〇〇外지도〇〇〇케하리라는바新年을지내고는運動을一層힘잇게하리라하며依例히풍성할晉州市街의年末은沈痛한氣分에싸혀잇더라(晉州)

釜山郵便客月狀況

釜山郵便局昨年十二月中郵便切手及葉書賣捌數量을보면葉書六十九萬五千二百四十五枚金額一萬四百三十圓十七錢五厘、一錢五厘切手二十四萬六千百八十三枚金額三千六百九十一圓七十四錢五厘、二錢切手十三萬一千七百六十二枚金額二千六百三十五圓二十四錢、三錢切手二十萬六千[illegible]一百八十七圓三十錢[illegible]各二割假量이激增하엿다하며三八錢이라는데前年同期에比하면錢切手는前年보다約一割이減少되엿다고(釜山)

飢饉救濟會
記者團發起로 義州에서組織

義州記者團發起로飢饉救濟會를去三十日午後三時本社義州分局內에서組織하엿는바一般同胞들은多大한同情을不惜하여同會事務에는本社分局으로金品을보내

同仁小作人會創立
水稅는負擔치안키로決議

去十二月二十二日에定州郡大田面同仁小作人六十餘名은同仁小作發起會를開하고臨時議長康元善氏外臨時任員을選定한後同月三十日에同小作人創立總會를열기로하엿던바當日定州郡大田面天道教宗理院에서同會員四五百名이參集하야臨時議長康元善氏의司會로同日下午二時에開會되엿는데選擧된任員은如左하며會長이水稅分擔에對하야小作人은全部負擔할수업다고決議하엿는데萬若地主가此에不應할時는同小作人會에서도絕對不服한다는決議로地主組合에提議하기로하고委員康元善氏와金得河氏를選擇한後同五時三十五分에閉會하엿다고

任員 會長康元善 副會長金碣河 總務崔東驛 書記趙濟植 昌模 會計崔東元 幹事金用茂 朴昌厖 評議員十九人 地方委員十八人

公約

一、小作人은事業을勸勉하야地主의利益을共圖키로盟約함

二、地主小作間水稅關係로地主가無理히小作權을奪하거나異議가有할時는本會員은受托치안키로盟約함

三、小作人은互相間援助하야不幸을免케하고同力扶助하기로盟約함

四、地主가小作에게無理히重稅를負擔식힐時는小作人은寬厚한諒解를求하되不得할時는拋棄하기로盟約함

五、本會員은本公約六章에違反할時는本會員은互相去來不通하기로盟約함

興水炭의聲價
外地까지有名

黃海道鳳山郡興水木炭은全鮮各地에서產出되는木炭보다는品質이一層優良한故로日本과大連方面에外지輸出이되는바興水驛으로만移送되는것이年二十五萬俵以上으로此를最低價一圓으로計算하면二十五萬圓이란巨額을우리손으로產出하는데興水木炭改良組合長朴圓雉氏의말을드르면木炭改良組合의組織된後로는雜炭이란것은一切업고全部가秤炭인外닭에다른木炭보다는比較的十錢의高價로도販路가넓다는바到處를勿論하고興水炭이라면有名하다고(沙里院)

주기를바란다하며執行委員은張有寬張信焌李晉黎朴成贊康鳳祥金志宇李燦基李珣根李泰彬(晉州)

勞働組合創立紀念

全南潭陽勞農會勞働組合에서는團結을더욱굿게하고團體의意義를一層定한다는意味로創立紀念式을新年一月二日午後一時에潭陽青年會館內에서開催할터인바一般當地有力家及商業家諸氏를招待할터이며遠近各勞働團體에서도參席하여주기를希望한다하며形便에依하야講演會外지開催할터이라더라(潭陽)

自由鍾

◇投稿規定◇ 一行十四字로二十行以內 本社에氏名과住所를明記하되 『自由鍾原稿』라朱書하시요 ◇投稿歡迎◇

麗水南面新舊面長에게

◇面長設置의本義가어데잇스며存在의必要가무엇인지는門外漢인筆者의知할바도아니오또는한다할지라도政治上으로보아도아니한다만은社會的으로此를考察하면多數民衆의共存共榮을期圖할만큼不可缺할公的組織體의一機關에不外할것이오決코個人의勢力鬪爭이나或者의階級嫉妬에惡用될私的所有物이안일것이다

◇勿論사람은感情的動物이라는別名이잇는以上에야一時的野心과私慾에交蔽되야個人的衝突이或間잇슬것은免하기어려운일이다그러나麗水郡南面에發生한新舊面長의地位爭奪戰은當初個人間私感에發源되엿다할지라도問題의主體가公的機關에關聯됨으로因하야其餘波는直接民衆休戚에影響됨이多大함으로筆者는本年五月以後公平한監視를不怠하엿다

◇그러나沈默의態度를固守함은君等의威信을恐怖함도아니요批判의資料를不得함도아니다吾民族의今日處地가落伍者의自嘆을未免함은區別을不爲하고 個人的感情에衝動되야黨爭을 是事한末流의弊가 一大原因된것을 痛感한所以이다

◇君等아!恐懼함이無한가民衆이무삼罪인고 君等의爭鬪를繼續하면繼續할것만큼吾民衆에게損失을與케할터이니 何로써報答코저하는뇨 君等의今日이잇슴은一朝一夕의故가아니다君等의先祖가南面山川과共히平和한生活을永世持續하엿슴에歸함인것을回顧하면後日地下에歸하야何面目으로 先祖의靈을對코저하나뇨 君等아私的感情은甲子舊年과 共히從事로逐送하고乙丑新春의公的幸福을迎來하라(利病生)

一時부터四時外지는同會館內에서大講演會와提燈行列外지잇슬터인바演士의氏名은如左하다(晉州)

李鍾天、蘇瑞應、任晩澤、李鶴

金剛活寫延期
寫眞이늣게와서

新年一月一日을期하야市外西江義法學校에서金剛山活動寫眞大會를開催한다함은이미報道하엿스나그『필림』의到着이幾日間遲滯됨으로不得已一週間을延期하엿다고(高陽)

報時鐘時間延長

定州市內報時鐘은市民의時刻保守의便益을圖키爲하야一日三回식打鍾한다함은報道한바어니와이케一層더時間을正確하게하기爲하야一日五回를打鍾한다는데報時의時間은如左하다고(定州)

午前六時 午前八時 正午十二時 午後四時 午後十時

元日招待會 東亞日報金泉支局

東亞日報金泉支局에서乙丑元旦을期會로하야一月一日午後六時부터金泉幼稚園에서晚餐會를開催하고支局勤務者와金陵青年會幹部一同及金陵學院職員一同과幼稚園職員一同을招待하야新年을祝賀하는뜻으로若干의晚餐과滋味스러운餘興이잇슨後同十二時에散會하엿다고(金泉)

勞働夜學創立

平南江西郡咸從市內盧宗三氏는當地에勞働青年을爲하야昨年末부터市內方元錄氏의住宅을빌려가르치든바勞働青年近二十名을모와珠算、朝鮮語、日語等을熱心으로가르치며이케부터十餘名만더入學하면同夜學을더욱擴張하리라고(江西)

勞働副業組合
隣里도模範하야

忠北槐山郡七星面道井里에서는昨年十月부터同里鄭璉朝氏의周旋으로勞働者들을모아가지고每夜에一般勞働副業組合을組織하야草鞋一定式을製作하엿다는데至今은組合員이二十三人이오草鞋가四百餘足인데三十餘圓의貯蓄이잇다하며燈油代와其他雜費는鄭璉朝氏가自擔하며諸般事를指揮하는故로隣村에서도此를模範하는傾向이잇다고(槐山)

強盜出沒
慶南固城地方에

경남진주군문산면갈촌리(慶南晉州郡文山面葛村里)에서사는박학봉(朴鶴鳳)(三七)은지난이십사일밤에 자긔의커가인고성(固城)읍실리에갓다가 도라오는길에괌괌한한사람이다라와서닷자곳돈을내노으라고협박을하는중판에자로『이놈가진돈을 다내여노으라』하고 위협함으로권귀박씨는내여주지안켓노라고하엿더니그자는수사달려들어차고밟아서다[illegible]

勞働夜學生徒募集

黃海道信川邑勞働共濟會의經營인夜學校에서는昨年十二月二十日에第一回卒業式이잇슨는데方今新學期生徒를募集中인바一學年은四十餘名二學年은若干名을募集한다고(信川)

藪島에무도적

市外鉎十里七三四番地金泰奉의所有菁根을藪島公立普通學校앞田中에파뭇어두엇는데지난二十七日밤에엇던자가八叺代價十二圓엇치를窃取해갓슴으로所轄駐在所에서는極力犯人을嚴探中이라고(藪島)

鎭南浦蹴球競爭

鎭南浦三和勞働青年會와三和信用青年會는去十二月三十一日午後一時부터第二普通學校運動場에서蹴球競技를行한바三和信用青年會에서敗戰하엿다고(鎭南浦)

스케트大會
北青에서開催

北青體育協會에서는來一月五日午前十時에北青郡良家面初里氷野에서스케트大會를開催하리라는데加入期는一月四日外지오申込場所는青年會館이라하며加入金은五十錢이라고(北青)

青友會發起會

昨年十二月二十九日午後九時에北青々年會聯合會々館內에서有志二十餘名이會合하야金教英氏의司會로會名은青友會라하고章程起草委員李春均、金知泰、金教英諸氏와創立總會召集委員朱琛熙、李彬均、金裕伯諸氏를選定하엿다는데時日은二月四日午後二時요場所는北青々年會聯合會館이라고(北青)

少年氷上運動
大盛況裡擧行

新義州少年會主催의少年氷上運動會는昨年十二月二十八日午前十時에新義州堤防外沼池에서開催하엿는데觀衆은無慮五百에達하엿스며定刻이되매淸雅한奏樂과아울러貴여운少年軍의入場式과數十餘種滋味잇는競技가잇슨後同日午後三時半에閉會하엿는데優勝者는左와갓다고(新義州)

一等 初音町桃軍 二等 若竹町紫軍 三等 梅枝町黃軍

公州錦江解氷

忠南公州郡錦江은年年十二月頃에는結氷되야陸地와가치氷上으로通行을하더니昨年에는十月頃에結氷되엿스나通行을할수업서[illegible]近日에至하야도로解氷된다고(公州)

安州青年法律講演

昨年十二月二十六日夜安州青年會主催로天道教堂內에서安州初有의法律講演大會를開催하엿는데金廷善氏의司會로韓根祖氏는『法律과青年』이란問題로現代法律의一大缺點은東西洋을勿論하고小數의有產者의幸福을擁護하는것이오大多數의無產勞働者를無視하엿스며朝鮮에잇서서는尤甚하다는意味로長時間에亘하야說破하엿스며繼하야李基燦氏는法律과道德을對照하야說明하엿다는데約四百名의聽衆이잇섯다고(安州)

新市火災
雲時에七間을

昨年十二月三十日午後四時頃에平北龜城郡沙器面新市洞三〇一番地金成學氏家廚房에서發火하야暫時間동안에草家七間을全燒하여버렷다는데損害는約九十圓假量이며發火原因은前記金成學氏妻桂氏가廚房에서操心을하지안함이라고(新市)

元山消防出初式
六日午前八時에擧行

例에依한元山消防組의出初式을오는六日午前八時부터擧行할터이라는데먼저午前八時의發鍾을맛처第一第二의各消防夫는警察署庭에集合하고그곳에서人員點名府尹署長의訓示가잇슨後本町旭町平元通에서梯子乘의妙技等을行할터이라고(元山)

佛教振興委員會

晉州佛教振興會에서는昨年十二月二十八日午後三時에黃義浩氏宅에서同會委員會를開하고來一月二日(舊十二月八日)의釋迦成道日의紀念祝賀式準備의協議를하엿다는데紀念式當日은上午九時부터同十一時外지內城洞護國寺에서祝賀式을擧行하고同下午

◇地方短評◇

◇鎭南浦 鎭南浦는겨울에는의례히港口가얼어서船舶이不通하게되는데금년만은破格으로日氣가溫和한德分에一般財界가좀殷盛하야살기가조와진다(甲子年이罪다름은한模樣)

◇濟州 張左面蔡己出이라는女子는釜山金山等地로도라다니며벌이를하야돈을모흘벌은되엇는데그男便蔡翔卿이란者는大阪에나가서[illegible]妻를薄待하는外닭에蔡己出은그媤父에게싸아준돈을찾기로訴訟하는中이라고可謂離夫離婦

◇洪原 洪原郡靈武一帶는魚穀產地로有名함에발이高利貸金業者도跋扈하는터인데그中에別々惡辣한者가만타二個實例만들면韓鍾錫은五十圓을貸付한지十五個月만에二百五十圓金銀甚은年々二四十圓八十錢을一年만에八十圓을바더내엇다고債鬼中에도惡魔일듯

質疑應答

一、質疑는一常生活에關係잇는事에限함 一、應答은本欄으로써發表함 一、質疑는姓名及住所를明記하야必히朱書로『質疑係』라明記함을要함

【問】甲은乙의게大正十一年十二月頃에貸付한商品代金을從來返濟치아니함으로大正十二年十二月頃에當地署에說諭願外지提出하게되엿스나遂히有耶無耶中에今年六月頃에야겨우該額約八分의一을返濟하고近者甲의請求에對하야는時効이니무엇이니하나果然甲은乙의게請求할權利가업슬것일가(訴然生)

【答】消滅時效는一部辨濟에因하야中斷되엿스니乙에게對하야殘額의請求를하시오 公平洞四九 辯護士金炳魯氏

◇天氣豫報 曇一時晴

溫度 華氏 昨日正午 三六 昨日最低 二六 昨年昨日正午 三五

再生 (五十六)

長白山人作 安碩柱畫

상편

순영은 곳대답하기를 피하는드시

『혼인은 꼭 해야만하우』하고 뭇고말앗다 봉구도 그자리에서 더다지어 뭇는것도 어리석은듯하야 그만입을담을고 말앗다

커피을먹고나서 약수터로 산보를가노라고갈세에 우연히 선주가 엇던남자와 함께이야기를하고 오는양이보엿다 갓가히온 세에봄족 그남자는 사이상이라는최씨다

『아이 이게 누구여?』 사뭇엄마만이요』하고 선주가 번차 갓가히뛰여와서순영의손을잡으며

『이런 그세 동대문밧게서는 고로케도 얌전을쎄더니 금년녀름에는 잘놀앗두구면그래 예기 여보! 아기나 안뱃소 그래이번에도 령감과가치왓소?』하고순영이가 듯기어려워하는 눈치도 못알아차리고 한참 써드는것을 참다못하야 순영은선주의 엽구리를 솔그먼히 질르며

『쉬쉬』하고 엄지 손人가락을 흔들어서 봉구를가르처엇다 선주는 깜작놀라는드시 봉구를바라보앗다 봉구는 바우하는모양으로 너덧거름압서서 저쪽으로 외면하고섯다

『공찰허는구료 어느사이에이 짓이어 대관절저이는 엇던수평이 도련님이오』하고 누구나 다 들어라하는드시 깔깔 웃는다

순영은 선주를 부러워하엿다 선주는 과연순영보다도 그방면으로는 능난하고 씻기엿다 순영으로는 도저히 곳그를따를수는업섯다 그래서좀수집는태도로

『아니오— 그저 친구야하고 순영도우섯다 두녀자의 웃는소리가 봉구와또그보다 두어거름 더것가히서서 담배를 피고잇는 최씨의귀에들렷다

『그럼 조흐신친구지 뭉?』선주의어조와몸짓은퍽음탕하엿다

『그런데 령감은?』하는 순영의말에

『역시 이게지』하고 약가순영이가 하든모양으로 엄지손人가락을 흔든다

『그럼그어른은안오시엇소?』

『응그이는 무슨일이잇서서일본을간다고 갓는데— 그틈을타서 우리올바허구잠깐 놀러왓지— 그런데 어듸게시우? 여러날 잇스려우? 우리하로모혀놉시다 그려— 여긔 칭료리가 다잇서요』

순영은 자긔의 어려운문데를 해결해줄지혜를 가진 사람은선주밧게는 업는듯하엿다 그래서

약수터를 지나서는 마주달시빈인것을 희용하야 큰길을향하고 권어올라가면서 자긔의 사정을 칠미하엿다

순영이가 봉구와 키우만나던 니야기를부터 지금外지 지나온경로를 말할세에 선주는긔긤

『자미조쿠려!』이러한묘한닐을 서어가면서 들엇다 그러나가순영이가

『그런데 지금은지구혼인을하자는구려 그러니 무에라고대답을하면 좃소?』하고불을세에는 선주는 흐흔소나무人사이로 비초이는밤은 얼굴 우횝이보면서 극히신상한법이 나되는드시

『그이 헌레 시집갈생각이잇스면가고 업스면 마는게지무슨걱정이야— 이이참말이 조키는 좃소— 이러케 달이란 소나무사세로 보아야만 쓰다더니참그런데— 또엇던사람밥이아모리달이 조화도 젊어서보아야만조래— 그러치 여보』하고순영은놈아보지도아니하고딸만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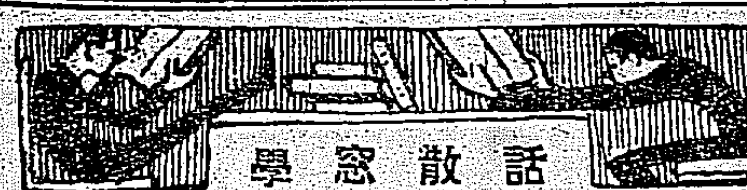
『그러치만— 글세 친칭할말하면 이이헌데 가고야싶지—

『그러치만 비헌테도가고싶다 말이지— 량수집이라는게야 그것이— 두손에 석윤 듯엇는데 어느석윤먹을지 망사리는게야— 아차아차 귀놈의 구름이 달을가리우는구려 이놈의 구름구려! 그리면 두손에 석윤을다 먹으구려 이석한입먹고 저석한입먹고그리면 안조흔가 하나만먹으면 물리지안우 지금人세상에누구는 안그런답듸가 흥그리치만으면 렬려정분 나리우— 털려도죽으면 썩어지고 나도죽으면 썩어지지 그러케 구요구요할세무에요? 어달나온다!』

新刊紹介

紹介를願하는冊子는東亞日報社編輯局으로보내주시오

▲開闢(新年增大號)內容을밋처通讀치못하엿스나表題와갓치『新年增大號』는더욱充實함을밋는다그重要한目次는『赤子主義에도라오라』(李敦化)『都會는수작』(起田)『建設의原理와破壞의原理』(八峯山人)『都會靑年으로農村青年에게』(鄭柏)『政治와法律의社會的意義』(朴衡秉)『反動線上의世界와및그趨勢』(安在鴻)『甲子一年總觀』(小春)『階級과民族의將來』(YS生)『近代歐米文化의根本態度』(梁明)『新年과朝鮮의第四階級』(一記者)李光洙論及創作『隨筆論評』千態萬相等發行所京城慶雲洞八八號定價並郵料七十二錢



◇世界에完全한文字가잇다하면그곳우리의 正音을이름이며世界에 奇妙한文字가잇다하면그역우리의 正音을가르침이다 백가지천가지모든것이남만못한 우리도오즉文字하나는남에게 자랑하고남음이잇다埃及의 楔形字와雜亂한漢字는번대 同日하야말할것이아니요 비록羅馬字로도우리正音에 比較하면遜色이적지아니하다 첫재글자의聲音을보라 우리것이저이것보담얼마나가추어잇스며 둘재글자의組織을보라 우리것이저의것보담 얼마나整齊한가不幸히우리의 힘이약하고뜻이 얄버그價値를 發揮치못하엿슬망정 世界文字中웃듬됨은일치안한다

◇그러나이처럼完全하고이처럼奇妙한文字가어느곳으로조차생기엿는가우리로그原因을詳細히 探究함이혹되고必要업는일 이라못할것이다正音에對하야世宗大王의苦心과勤勞는아모라도疑心치못하겟지만正音이그의創作이냐아니냐이問題에 이르러는議論이자못紛々하다 或은正音이古代에固有하든것이라하야 世宗은若干改作에지나지못함을說明하며 或은外國을模倣한것이라하야 世宗은一部修飾에지나지못함을主張한다

◇그러나 果然正音이古代에固有하든것인가 그說明을드르면우리보다 文化가 나젓든아이누族屬으로도 古代에文字를가젓섯스니 우리인들文字가엇지업섯스랴 이것이理由며 우리와同族인渤海도古代文字가잇섯든모양이니 우리라고엇지文字가업섯스랴 이것이한理由며 近代어느地方에서한개碑石을發掘하엿는데 알수업는글자로색이어잇섯다그곳우리의古代文字가아닌가이역한가지理由다 그러나이런理由로古代文字의存在를證明하기는充分할지모르나 正音이곳古代文字의改作이라 斷定키어려우며 設使古代文字가存在하엿섯다하더라도高麗以後로는使用한자최가업스니 正音과는聯絡이업슬것이다

◇그러면아니外國文字를模倣한것인가 外國文字를模倣하엿다면 어느나라文字를模倣한것인가 或은梵文으로도말하며 或은蒙文으로도말하며 또或은中國篆文으로도말하니 어느말을 取信할것인가 古人의記錄은 이미쇠잔하고後人의 推測만 어지러우니自然질정하기어렵다 그러나어리석은 소견가트면 梵文과蒙文과및 篆文이모다우리正音과關係잇는듯하다 中國音韻學은 梵文으로어든것이오黃瓚은中國서 相當하든音韻學者니正音과梵文이關係가업지안할것이며 元으로인연하야우리나라에蒙文輸入된것이分明하고또蒙文을볼써그組織이正音과만히類似하니 正音과蒙文關係도헤아릴수잇스며 아마글꼴의形體는中國篆文에서取한모양이니 鄭麟趾의序와洪良浩의解釋으로알수잇는것이다

◇다시말하면세가지文字中에서그長處를가리고 短點을바리어正音을이룬것이다 그럼으로그만치完全하며 그만치奇妙하지안할수업다 그러나外國文字를 모아大成함은잇슬망정 보고模倣함은아니며 여러文字에 參酌하야精華를뽑앗슬지언정결코部分을修飾함에 그침은아니며 그大成함과 그精華를뽑음이잇다하더라도 梵文이곳正音이아니오 蒙文이곳正音이아니요正音은獨特한正音이니 世宗大王과및 諸學士의創作이아니라하기어렵다

光陽郡玉谷面[illegible]里 [illegible] 鄭運璘
光陽郡光陽面七星里 道評議員 朴準圭
光陽郡仁德面仁東里 面協議員 金東植
光陽郡津月面烏沙里 崔琯鉉
光陽郡津月面烏沙里 鄭康鉉
光陽郡津月面月吉里 宋春洪
光陽郡多鴨面高士里 金容洙
光陽郡多鴨面 面長 鄭鍾謨
光陽郡多鴨面新院里 面書記 金德鳳
光陽郡津月面月吉里 三育學堂
光陽郡津月面月吉里 光陽一光青年會
光陽郡津月面月吉里 三育學堂敎員 許範九
光陽郡津月面月吉里 金志玄
光陽郡津月面 月吉里振興會
光陽郡玉谷里 面長 安炯義
光陽郡玉谷面新[illegible]里 徐漢武

光陽郡津上面[illegible] 醫生 高光倫
光陽郡津上面 蟾居振興會
光陽郡津上面[illegible] 宣洪根
光陽郡津月面[illegible]里 面長 黃載鉉
光陽郡津月面[illegible]里 李康悅
光陽郡津月面[illegible]里 朴鍾洙
光陽郡仁德面仁東里 [illegible] 金昌[illegible]
光陽郡仁德面 面書記一同
光陽郡 金榮濟
光陽郡光陽面 面職員一同
光陽郡津月面鳳亭里 裴東君
光陽郡津月面鳳亭里 朴一淳
光陽郡津月面鳳亭里 安垌玉
光陽郡津月面東蛇里 安垌鎭
光陽郡津月面東蛇里 安[illegible]
光陽郡津月面馬[illegible]里 鄭[illegible]
光陽郡津月面 面書記 朴一魯
光陽郡光陽面竹林里 崔春鳴
光陽郡光陽面竹林里 朴[illegible]永
全南麗水 麗川金融組合

光陽郡光陽面[illegible]里 張大用
光陽 草南鑛山
光陽郡津上面[illegible] 禹東完
光陽郡[illegible] 俞載鉉
光陽郡[illegible] 李重模
光陽郡[illegible] 李嫩樓
光陽郡[illegible] 朴亨圭
光陽郡[illegible] 金容玑
光陽郡[illegible] 崔榮植
光陽郡[illegible] 徐漢轍
光陽郡[illegible] 崔植鎭
光陽郡[illegible] 趙東濟
光陽郡[illegible] 金容守
光陽郡[illegible] 孫秉奎

仁川期米 新春時勢觀

仁川期米時勢의過去甲子一年間波瀾의形跡을回顧하건대一月四日에三十圓三十五錢에發會하야一二三月은高價三十三圓〇二錢低價三十圓十五錢範圍에서往來하다가四月에入하야凶作氣分의發露로三十三圓八十錢의天井價를出現하고低落의步調로轉換하는際六月에入하야內閣更迭로因하야新內閣의財政經濟의根本的緊理를念慮하는悲觀人氣로暴落을出演하야七月初旬에二十七圓八十一錢의低價를示한後六月限當受渡米格外米多大함을動機로爆發急變하는際에日本各地와朝鮮의旱魃을念慮하는人氣로因하야三十四圓四十錢의高價를示하고九月에入하야厄日無事가動機되야將次新米時期의迫近으로買氣가不振하야畢竟二十九圓十五錢에瓦落한後다시端境期

在米不足

으로正米가暴騰하는影響을受하야急騰하는形勢로變하야今後日本及朝鮮年事가不作되는事實이表現한外탐으로그形勢가終是不弛하야十二月四日에先限으로의年中最高三十五圓三十錢을出現하고小弛하야畢竟三十四圓七十錢의大納會를告하니大正十三年中時勢는最高最低의値幅은七百四十九丁이다그러나第一次三十三圓八十錢에서二十七圓八十一錢外지第二次二十七圓八十一錢에서三十四圓四十錢外지第三次三十四圓四十錢에서二十九圓十五錢外지第四次二十九圓十五錢에서三十五圓三十錢外지波瀾의値幅을合計하면實로二千四百九十八丁의大波瀾이엿도다

今에過去

一年의實勢와事實上表明된米自給需要供給의事情을土臺로삼아歸納的으로將次新春時勢의强弱을論하야歸納的으로米價의趨勢를觀察하고저한다

(가)新春은高騰하리라는强氣

一、米自給需要供給計算은左記計算上에나타난供給不足으로殊히못할事實인데더욱히新穀出廻가임의一次終了되야米山의成立이업슬터임으로將來低落을招致할念慮가無하니自然的으로新春부터强化아니치못할것이事實로供給과需要推算이아래와갓다

◇供給推定量

端境期殘存	五、二一〇千石
鮮米移入	三、〇〇〇
臺灣米移入	一、二〇〇
第二回豫想	五七、四四四
計	六六、八五四

◇需要推定量

日本消費量	六六、六七〇
外國移出	五〇〇
端境期持越	五、〇〇〇
計	七二、一七〇
供給不足	五、三一四

二、財政經濟界事情으로보면第一貨幣價値下落에比하야日本物價가아즉昂騰中途에잇슴으로畢竟一般物價의昂騰을招致할것이며따라서米價의必然高를示할것이오第二米及生糸高로農家의收入이增大함을미루期待하는것이事實이오第三日銀의買入力이增進하는反面에持米를放出아니하고將來高를期待하는것이事實이오第四日本政府의復興豫算今年支出一億八千萬圓中只今外지支出한것이겨우

五千萬圓

에不過하다하니一億三千萬圓이次年에持越되는同時에十四年度의復興豫算九千萬圓과合하야二億二千萬圓假量이民間에散布될터임으로通貨의膨脹을招致하야景氣가好轉할것이요第四株式市場을비롯하야生糸綿糸의活躍을出演하는光景等모든事情이確實히好轉의傾向이잇스니一般物價의律을조차米價도自然昂騰을볼것인데兼하야二年繼續하야年事凶作이事實로新春初부터라도決코時勢가緩弛치안코高步의初春을展開하리라한다

(나)端境期에入하야如何할지는모르되新春부터春彼岸以內에는一轉의低落이必有하리라고보는弱氣說

一、供給不足은누구든지認定하는바이지만은그供給不足의人氣로現今不景氣의絕頂인今日에米價三十五圓의高位를維持하는것이다萬一凶作이아니엿드면到底히現下의高價를보지도못할것이요假令高價가잇셧다할지라도長久한時日을維持할수업슬것이다그럼으로大正十三年七月以後一貫한昂騰은凶年時勢를濱[illegible]업시發現한것인즉凶年에買米하야利엽다는古來格言과가치新春以後彼岸外지는도리혀時勢는人氣의裏面에서出하야反落을示한것이요또大正十三年十二月當限大受米를하야가지고十分買埇하려하엿스나조금도奏效가업는것을보아도時勢의實勢가더繼續할餘地가업다는것을暗示한것이요더욱히그受米가將次處分難을感하는바에는正米市場의壓迫物이될것이다

二、財界事情으로볼지라도世上이喧動하는바와가치그實際가和性치아니하는것이므로好轉樂觀은早計일것이다第一[illegible]의自然的恢復은殆히無望한것이事實이오第二金融은依然히貸付가預金을超過하야新年資金의融通은아즉보기어려운것이요第三現下多少景氣的氣勢分은實로根據가薄弱하야치못한投機的景氣임으로이것을곳歐米財界의好轉과同斷樂觀할수는업는것임으로財界의非情이到底히米價에對하야好影響을與하리라고는볼수가업스니그供給關係로將次端境期에臨하야如何할는지는모르되新春부터는昂騰한다는이보다도低落하는것이順序이라고한다、

新春時勢觀에對하야는强弱兩面에分한各所論은上記한바와如함으로需要供給에關한事情이든지財政經濟界의事情은强弱說에表現되야充分히그趨勢를窺知할을得하야누구든지冷靜히吟味하면그正鵠에갓가운觀察을下할것이요

其主見에

合當한解釋을持하려니와大正十二年、大正十三年二年을繼續한凶作인것은事實임으로果然이凶作의翌年新春二月限時勢는如何한實勢를示現할것인가日本朝鮮의時勢를支配하는可謂天下의堂島라하는堂島에서는過去凶年後年新春時勢는엇더한經路를밟버스며또엇더한統計를示하엿는가今에過去六年의凶作後年의三月限의高低表를아래에揭하야將次發會하랴는이凶作後年인大正十四年三月限時勢에對比하야讀者의實益이잇는參考資料에供하려한다

凶作을告한翌年三月限

年次	凶作步合	發會價格	納會價格	比較
二年	二步	二三、三	一九、七六	低[illegible]
三年	一步	一八、〇四	一七、[illegible]	低、〇五
五年	四步	[illegible]	[illegible]	低[illegible]
五年	九步	[illegible]	[illegible]	低[illegible]
七年	二步	[illegible]	[illegible]	高[illegible]
八年	二步	[illegible]	[illegible]	低[illegible]
十年	一割	[illegible]	[illegible]	低[illegible]
十一年	七分	[illegible]	[illegible]	低[illegible]

【備考】大正元年부터十二年外지十二個年間에凶作이前記六個年이요그六個年中高納會價가잇는것은大正七年一個年이오其他五個年은모다低納會로한것이事實이다

各地新甫豫想

仁川期米는지난二十六日大納會를告한後株式綿絲의高張한報를傳함으로依然히正米市場의人氣高張하야期米納會日의正米의時勢는㊄四等合格米三十四圓八十錢이엿든것이其後連日高騰하야三十日에는三十五圓二十錢을唱하는光景임으로期米市場에도其刺戟을바다人氣强化하는狀態인데兼하야三十日大阪情報는株式綿絲高로因하야大阪期米二月限物三十九圓二十四錢을傳하엿슴으로當地人氣더욱强硬하야二三十錢高를唱하며日本各地新甫付稍燃想은左와如히傳하엿더라(仁川)

大阪	八九十丁上鞘
東京	四五十丁上鞘
兵庫	百二十丁上鞘
名古屋	四五十丁上鞘
桑名	五十丁上鞘
金澤	四五十丁上鞘
高岡	四五十丁上鞘

新年株界

◎株式仲買店 金潤昊氏談

客年中의株式界는實로至極閑散하엿슴니다初春에는反動時勢로豫想以外의高價가出現하엿스나其後繼續하야突發되는諸般惡材料로基因되야六月中旬에最低價를現出한後以來個年間至極한無變動으로京取市場은勿論各仲買人一同去來客이擧皆深刻한苦痛을바닷슴니다그러나十一月中부터日本經濟界도海外의好影響을바다漸次希望을보게되엿슴니다歐米市況을觀察하면米國의[illegible]大統領의當選英國의保守黨內閣의成立이財界에深大한好況을致하엿스며倫敦會議의結果또는[illegible]案實行確定이歐洲財界에新光明을비치여非常한樂觀을주엇슴으로英米諸國의株式市場은年前好景氣時以上의高價로出하엿슴니다日本財界도此에應하야生糸綿絲其他重要產物의價格이漸次上調로活躍을開始하엿스며株式界도前途[illegible]게되엿스며가지고新年을迎하게되엿슴니다早見으로말삼하면今年時勢는初期의好景氣인故로穩健한步調를밟아갈줄로生覺합니다그러나新年時勢는穩健한步調로一般株式金融도此에依하야幾許間緩和될지며따라서株界에新生面이開할줄밋슴니다

物價(一月二日)

穀價(都賣)

多摩錦稻	一斤	九錢九厘
神力	同	九錢[illegible]
在來種	同	九錢[illegible]
安米(三等)	一石	三六、[illegible]
合格(龍山)	同	三三、〇〇
無檢	同	三三、〇〇
▲地搗上	一石	三八、五〇
由米	同	三七、〇〇
石拔米	同	[illegible]
鮮白上	同	三六、五〇
同中	同	[illegible]

(漢興精米所)

石炭

撫順塊炭	一噸	三〇、〇〇
同切込	同	一八、〇〇
(日本產)		
豐國塊炭		[illegible]
安州塊炭(三孔)		[illegible]
官製無煙炭(三孔)		[illegible]
同		[illegible]
民製無煙炭(三孔)		[illegible]

根炭

興水原改良	一俵	一、四五
新稻洞	同	[illegible]
馬洞	同	一、五〇
白炭	同	[illegible]
枝炭	同	一、四〇

(星元商會)

城津郡鶴南面壹洞 [illegible]斗樞
城津郡鶴南面梨峴洞 崔[illegible]陵
城津郡鶴南面梨峴洞 崔濟臣
豐泉酒造場 主任 洪守憲
端川郡北斗日面新堂里 第一區長 李[illegible] 第二區長 張[illegible]
端川郡北斗日面龍陽里 第一區長 金鼎夏 第二區長 孫致順
端川郡北斗日面大新里 第一區長 崔泰益
端川郡北斗日面陽川里 第二區長 金珩洛
端川郡北斗日面 事務所職員一同
端川郡北斗日面 北斗公立普通學校 校長 薛仁鎬
端川郡北斗日面大新里 貿易商 大新商會
端川郡南斗日面[illegible]山里 [illegible]山酒造場
端川郡廣泉面松項市 秦昌商會
端川郡廣泉面永坪里 金道彬 金昊俊
端川郡廣泉面雲川里 金澈
端川郡廣泉面東元里 李昇連
端川郡廣泉面雲川里 尹成英
端川郡廣泉面雲川里 金躍漢
端川郡廣泉面松項市 全性[illegible]
端川郡廣泉面東元里 協東義塾敎員 金麟昌 徐[illegible]
端川郡邑內 東明理髮館主 李敎相 助手 金興瑞
端川郵便所長 中川良治
端川郡邑內 城津濟生醫院 端川出張所 醫師 金榮培
端川邑內 壽世醫院 主 崔昌煥 電話三五番
端川警察署 職員一同 電話三三番
端川郡邑福川里 興業社酒造場 電話二〇番
端川郡邑內 公立普通學校 職員一同 電話四七番

端川郡廣泉面雲川里 普賢講習所 職員一同
端川郡廣泉面 面事務所 職員一同
端川郡南斗日面 面事務所 職員一同
端川郡南斗日面 堡巨里酒造場 主任 金泰龍
端川郡南斗日面堡巨里 羅貨商 元錫昌
端川郡廣泉面雲川里 金鵬洛
端川郡廣泉面松項市 金[illegible]
端川郡廣泉面 龍田酒造場
端川郡廣泉面松項市 全柱益
端川郡廣泉面獐項里 金洛承
端川郡廣泉面獐項里 金洛洛
李培鍊
端川郡利中面[illegible]山里 高川商店
端川郡廣泉面永坪里 李昌文
城津郡鶴南面琴山洞碾田村 林錫弼
城津郡鶴南面琴山洞 金元用
城津郡鶴南面琴山里 金法用
城津郡鶴南面琴山洞上村 金京俊
城津郡鶴南面琴山洞碾田村 林斗彬
城津郡鶴南面日新洞 金國謙
城津郡鶴南面日新洞 黃永敏
城津郡鶴南面日新洞 金遠檜
城津郡鶴南面日新洞 尹長福
城津郡鶴南面日新洞 朱敬夏
城津郡鶴南面日新洞 黃澤善
城津郡鶴南面琴山洞 琴山酒造場 職員一同
城津郡鶴南面禮洞 海陸物貿易委託販賣業 梁承浩
城津郡鶴南面禮洞 徐何仁
城津郡鶴南面禮洞 梁正國
城津郡鶴南面豊湖洞 李國器

端川郡福貴面豆彦里 崔治勳
端川郡福貴面龍岩里 區長 許昌浩
端川郡福貴面沙富津 區長 李昌英
端川郡福貴面龍淵里 普仁學校 職員一同
端川郡福貴面沙富津 協昌學校 職員一同
端川郡福貴面 面事務所 職員一同
端川郡利中面汝海津 金重炫
端川郡何多面雙上里 金玩燮
端川郡何多面 面事務所 職員一同
端川郡何多面蓮峯市 徐春植
端川郡何多面蓮峯里 金仁鼎 金象煥
端川郡何多面陽坪里 金谷商店主 安氣鎬
端川郡何多面蓮田里 金友淵
端川郡何多面陽坪里 金仲仁 安昌栻
端川郡何多面蓮峯里 製帽專門 勇鮮工藝部
端川郡何多面蓮峯里 姜理律
端川郡何多面蓮峯里 道評議員 許文煥
端川郡何多面蓮峯里 光東學校 職員一同
端川郡新滿面 面事務所 職員一同
端川郡新滿面新洞里 新洞酒造場
端川郡新滿面石隅里 石隅酒造場
端川郡利中面 面事務所 職員一同
端川郡利中面斗牛里 東興商店主 金斗彥
端川郡廣泉面松項市 金秉郁
端川郡邑內 丸子回生堂藥房 電話九番
端川郡邑內 小助根 加藤兵助 電話四一番

端川郡邑內 酒類販賣業 權貞熙
端川郡邑內 松尾又一 電話一〇番
端川郡波道面松坪里浦項村 沈世[illegible]
端川郡波道面獨坪里 金秦集
端川郡波道面松坪里浦項村 沈世熙
端川郡波道面上直[illegible]里 沈泰亨 沈洙根
端川郡波道面曾山里 安基衡
端川郡波道面上直[illegible]里 區長 李能武
端川郡波道面曾山里 李正均
端川郡波道面下直[illegible]里 沈昇淵
端川郡波道面社洞里 梁基煥
端川郡波道面新昌里 申學洛
端川郡松坪里浦項村 金仲燮
端川郡波道面新昌里 金奎現
端川郡波道面 藥種商 金奎晥
端川郡波道面曾山里 李桂[illegible]
董學林
端川郡波道面 面事務所 職員一同 電話四三番
端川郡 鮫島旅館 電話一二番
端川郡邑內 沈鋪 電話三九番
端川郡邑內 許道南 電話三〇番
端川郡邑內 木工 金洪九
端川郡邑內 醫生 康履稷
端川郡福貴面龍岩里 李子鳳
端川郡福貴面豆彦里 許琢濬
端川郡福貴面龍岩里 金百連
端川郡福貴面沙富津 張石文
端川郡福貴面龍岩里 李補胤
城津郡鶴南面豊湖洞 崔峻極

浦項 浦項寫眞館 崔永[illegible]
東海面職員一同
九龍浦林業漁業會社 洪淳憲
滄州面長 李龍根
興海 金明[illegible]
興海 李元雨
興海公普校 敎員 李英珪
浦項仲町 支那料理 陶[illegible]
大松面松內洞 金[illegible]業伊
東海面發山洞 造船所 片道先
浦項本町 永信洋[illegible]所 崔[illegible]
斗湖洞 水產業 張萬俊
斗湖洞 水產業 李昊道
斗湖洞 水產業 安光逸
浦項 大成業 金淑度
浦項 水產業 李一雨
慶州菊堂里 水產業 辛禹玄
浦項 委託業 朴允余
浦項醫院 醫師 鄭華基 電話二一九
九龍浦 淡陽 菊花玉山梅春紅蘭錦碧蓮鄭 櫻花月蓮玉花梅珠花桃紅鵑
浦項本町 海陸產輸入所 中谷竹三郎

清河面職員一同
松羅面興學校職員一同
松羅寶鏡寺 住持 沈寶淵
盈德南亭面職員一同
盈德長沙 李衡珍
興海牛角洞 商 李源璣
興海邑 代書業 李[illegible]律
浦項仲町 崔在守
浦項金曜會
四文洋行自轉車商社社長 文明琦
浦項公普校 職員一同
迎日郡廳 職員一同
浦項 陸產物委託販賣 鄭用守
東海面東成學校 校長 金斗俸
神光士城 洪[illegible]均
神光士城 李東彬
神光私立普校 敎員 朴弼煥
神光牛角洞 李種允
神光私立普通學校
浦項 海陸物產委託販賣 崔鎮九 崔暎
浦項 金鍾樹
淸河面古縣洞 郭太燮
曲江面七浦洞 水產業 張源楨
興海邑 商業 崔基顯
興海邑 商店 韓元仲
斗湖洞普明學校 敎員 金龍碩 鄭德述

慶州郡邑洞 李基東
[illegible]
許枋
斗湖洞普明學校
慶州郡安康 布木商 金東植

安康金融組合 職員一同
慶州郡江西面 職員一同
安康同友會
安康少年團
安康 李元根
安康 朴泰和
安康漁業 金[illegible]海
江西面[illegible]里 崔[illegible]
江西面中山里 崔根壽
江西面山谷里 李[illegible]
江西面斗流里 崔[illegible]
江西面根溪里 崔[illegible]漢
江東面[illegible]里 李[illegible]
江東面有琴里 曹[illegible]
江東面 陸產委託販賣 金[illegible]述
江東面職員一同
慶州郡[illegible]立玉山學校 校長 李[illegible] 敎員 朴[illegible] 崔[illegible] 姜任[illegible] 會計 李[illegible]
慶州郡良洞 李錫泓 李錫泳
慶州郡良洞 李春源
慶州郡良洞 李源憲
慶州郡良洞 李錫海
良洞公立普通學校 職員一同
浦項旭町 入院開業 海[illegible]醫院 電話一六二番
京東醫學士 興海出張所 出張所常務員 金[illegible]東

汽車時間

[illegible]